

수용자 종합문예지

통권 458호 | 2022 여름호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직원 시 | 테마원고 | 수필 | 기획기사 | 용서의 글 | 시 | 독후감 | 수기 | 소감문 | 서간문 | 감상문

2022 | 여름
동 권 458 호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직원 시

- 04 남국의 바다에서 | 천안교도소 교사 심진호
- 05 그해 여름, 동물원은 | 광주교도소 교위 신재옥

테마원고 - 그해 여름

- 06 그해 여름 - 직녀에게 | 진광철
- 07 담장에 걸린 여름 | 김대영
- 08 그해 여름 | 이준희
- 09 그해 여름 | 김창수
- 10 여름 바다 | 윤치성
- 11 수박 | 유시진
- 12 2018, 그해 여름 소묘 1 | 김정수
- 13 그해 여름 | 김채영
- 15 그해 여름 | 엄은우
- 18 어느 여름날들 | 임동한
- 21 한 여름 막내딸과의 약속 | 김태영
- 23 그해 여름 | 심광철
- 26 그해 여름에는 | 박정주
- 30 찬란했던 그해 여름 | 이상진
- 34 그해 여름이 생각한다, 뉴질랜드의 여름이 | 박정현
- 38 그해 여름 | 홍지환
- 40 찬란했던 그해 여름 | 공수정

수필

- 43 주머니 | 신원철
- 45 반건조 오징어의 회고록 | 정택수
- 47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 박근익
- 50 비상을 꿈꾸며 | 전홍제
- 52 어머니의 밥공기 | 권준형
- 54 어느 여름 나팔꽃의 굳은 의지 | 민경근

기획기사

- 57 사람의 역사 속에 새겨진 말 이야기 | 동덕여대 교수 김상철



2022년 여름호 (통권 458호)

1948년 4월 1일 창간 2022년 6월 22일 인쇄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 111-1270000-000299-08
 편집인 : 한태환 인쇄 : 서울남부교도소
 디자인실 : 한양애드 (02)2279-0814
 우편번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회복귀과 : (02)2110-3363
 * 원고는 각 교정기관 담당자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글

- 65 용서를 구합니다 | 이태민
- 67 용서를 구합니다 | 홍대식
- 70 나로 인해 고통받았을 모든 분들께 & 감사의 방법 | 윤현로
- 72 청소 리어카에 반성·후회 다짐을 싣고 | 신영철
- 75 너에게 달기를 | 김상원
- 78 감사와 용서를 구해봅니다 | 강성준
- 81 용서(容恕) | 함기철

시

- 83 목마를 태워줄게 | 박자호
- 84 포장마차 | 이호윤
- 85 그림자 3 | 정정식
- 86 몽돌 | 한상혁
- 87 접견 | 이선범
- 88 소금쟁이 | 최지홍
- 89 종 | 방영석
- 90 흑장미 꽃 한 송이 | 배순자
- 91 빨간 고무통 | 권산이

독후감

- 92 「다산의 마지막 질문」을 읽고 | 이소영
- 95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읽고 | 이태희
- 97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 신민철
- 100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읽고 | 이원준
- 104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을 읽고 | 한대희

수기

- 107 큰형님, 막내가 죄송해요. 너무 | 김대성
- 110 아버지와 운동화 | 김수일
- 113 기적이 따로 있나 | 조금성

소감문

- 116 내 삶을 되돌아보며 | 박종석
- 119 악마의 얼굴 | 박우영

서간문

- 122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냅니다 | 윤성식
- 124 막내누님 고맙습니다 | 서준희
- 126 사랑의 기억 | 한영수

감상문

- 127 새길을 읽고 | 박정화

남국의 바다에서

심진호 | 천안교도소 교사

흔들리는 파도의 요람에 누워
야자수를 올려다보았다

파라솔 아래 앉아
구름을 올려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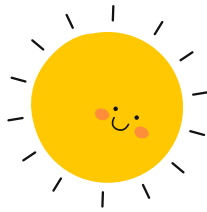
경주마처럼 달려온 그동안
하늘을 파랑계만 그려왔는데

비슬해지도록 달릴때까지
나는 왜 이토록
한 가지 색만을 칠해왔을까

매번 다른 색으로
물들어가는 하늘과 바다같이

나의 여생은 이제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갈 수 있기를

그해 여름, 동물원은



신재옥 | 광주교도소 교위

동물원이 쬔고 있다.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를 받아
수많은 인파와 동물들이
부글부글 왁자지껄 쬔는다.

오늘의 주 메뉴는
곰, 사자, 호랑이, 원숭이...
그러나 너무 쬔였을까?
모두다 양탄자처럼 누워
한 뼉 그늘 바닥에 붙어 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우지 못한
해설사와 사육사는 미안한 듯
이리저리 애써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동물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한마디
넵뉘유~ 우리는 동물들도
어떻게 쉬나 그거 보러 온건께
그해 여름, 동물원은 어르신 한마디에
잃어버렸던 여유를 다시 찾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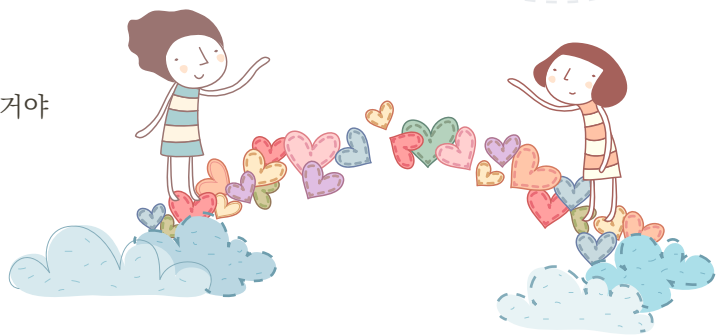
그해 여름 - 직녀에게

진광철

그해 칠석날 내 가슴엔
뜨거운 함박눈이 내릴거야.
은하수 건너 해묵은 설움까지
흰 눈으로 소복소복 덮이겠지.

언 은하수강 삼십삼천을
눈물로 녹이고 나면,
설움골 마파람도 한 풀 꺾일 터.
그 때 나는 소를 몰고 널 찾아 나설거야

내 가슴에 작열하는 태양을 담고
달빛처럼 고운 너를 찾아 가는 길.
그해 여름,
직녀성이 흰 눈처럼 빛나는 날
우리 서로 그리움을 이어
오작교에서 만납시다.



작품평

7월에 내리는 눈. 그것도 뜨거운 함박눈이 내립니다. 가슴에 태양을 품고, 달을 찾아가는 여름. 직녀성이 흰 눈처럼 내리는 날 오작교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아련합니다. 얼어붙은 은하수가 시인의 눈물로 녹으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편입니다. 7월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담장에 걸린 여름



김대영

담장 위에 턱 쾜 나뭇가지 하나
손에는 열대야처럼 길게 늘어진 붉은 꽃 하나 흔들며
같이 춤추자고 웃네
무더운 여름이 내 발목 잡고 있어 움직일 순 없어도
그 아름답고 하늘거리는 춤사위를
넋 놓아 보네

아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행복 찾지 않았던
담장에 걸린 여름
이제는 손 닿지도 않는 높은 담장에 걸린
여름

작품평

나무도 여름은 덥겠지요. 그늘을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 담장 위에 기대어있는 나뭇가지를 본 시인의 여름이 아름답습니다. 덥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저 평범한 한 순간을 넋 놓고 더위멍, 할 수 있는 여유. 그러다 문득 저렇게 사소한 일에 행복해할 수 있다는 시인의 마음이 잘 읽혀서 좋습니다.

그해 여름

이준희

짐정리를 하다 우연히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바람 대신 매미소리 불어오는
유난히 더웠던 그해 여름

앞동 화단에 핀 장미꽃 보러 가자며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막내 강아지랑 같이 나오니
평소보다 꽃이 더 예쁘게 폈다던

햇살로 가득한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장미가 만발한 화단을 배경삼아

여름보다 뜨겁게 내 손을 잡고
장미처럼 곱게 웃고 있었다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
이따금 가슴속에서만 그리워했던

할머니의 뜨거웠던 손이
그해 여름이 거기 있었다.



작품평

사진은 순간을 붙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순간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 할머니와의 추억, 화단에 만발한 장미는 아직도 피어 그리움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해 여름은 그렇게 지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해 여름



김창수

여름 속 발가벗은 소년이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다.

그해 여름
소년의 키는 한 뼘쯤 더 컸고
나는 이발사가 되었다.

젊은 아빠는 에어컨도 없는 허름한 이발소에서
쉬지 않고 일했지만
형편은 쉬이 나아지지 않았고 매일은 고단했다.

서울의 낮 기온이 관측사 상 최대라던
그해 여름.
남들 다 가는 피서도 못하고
일하는 아빠만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해 여름.

나는 아이의 머리를 밤송이처럼 짧게 치고
어디였던가...

무작정 철원 쪽 시외버스를 타고 한시간쯤 달렸던가..
길가에 있던 작은 냇가
그 곳에서 수박 한 덩이를 물에 담갔다.

그래도 아이는
유일한 가족인 아빠와 첫 피서가 마냥 좋은지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고, 땀다.

넷가 물방울이 텀벙이고
검게 그을린 피부가 은울처럼 빛나고

사진속의 아이가 나를 보며 웃는다.
불타는 그리움이 햇살따라 익어가고

올해 여름
하얗게 바래버린 머리의 그해 여름 젊던 아빠는
제 키보다 더 커버린 아이가 그날만큼 보고 싶지만

그해 여름. 올해 여름.
여름은 여름으로 통하고 언젠가 만날 테니까
종이부채로 연신 흐르는 땀방울을 훔쳐내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아이의 웃음이 더 익어가고 나의 웃음도 익어
더 행복할
언젠가의 여름을.

작품평

몇 번의 여름을 보내고 아버지가 된 소년. 이발사가 된 소년. 아이와 함께 보낸 그 여름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행복이란 게 큰 에피소드로만 이루어져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하느라 피서 한 번 못간 아버지와 아들의 여름이 다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한여름 더위 잘 견디고나면 이내 그 가을이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름 바다

윤치성

누군가에게 오래 머문다는 것은
바닷물처럼 짠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바다를 만들 수 없지만
바다는 눈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다는 여름이고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흐르고 흘러 끝이 없이 흐르는
그리움의 파도가 일기 때문입니다.

하얀 별빛이 쏟아지는 여름의 바다
수줍은 조각달의 작은 속삭임이
한줄기 사랑빛으로 여울질 때
명치끝, 비명처럼 달려드는 그리움

이 길고도 고단한 하루의
힘없는 그리움들...

작품평

누군가에게 오래 머무는 일이 바닷물보다 짠 눈물 때문이라는 시인의 진술 앞에 머뭙니다. 눈물은 바다를 만들 수 없지만 바다는 여름을 간직한 추억이어서 눈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밀물처럼 다가온 그리움은 또다시 일어서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힘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박

유시진

여름에는 수박이 최고다.

무더위에 찌든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중엔 누가 뭐라해도 역시 수박이 최고다.

어린시절 너와 먹던 그 수박을 잊을 수가 없다.

수박 하나를 놓고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손으로 마구 퍼 먹다가 서로 눈이라도 마주치면 뭐가 그리 웃긴지 세상 떠나갈 듯 웃었지.

그리고 다먹은 수박을 모자처럼 쓰고 다녔던 어릴적 우리가 매년 여름이 다가 올 때 쯤이면 나는 항상 그 날을 추억하고는 한다.

지금은 다 커버린 우리가 그날처럼 근심걱정 없이 웃긴 힘들지만 수박을 볼때면 나는 항상 소소한 미소를 짓곤한다.



작품평

여름 하면 수박이지요. 수박은 혼자서 다 먹을 수 없어 나눠 먹어야 하는 채소과일입니다. 수박껍질을 모자처럼 쓰고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이, 어른이 되어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여름이면 수박이 그 때마다 우리의 기억을 소환해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웃음 짓는 여름을 보낼 것입니다.

2018. 그해 여름 소묘1

김정수

새벽이 휴대폰 벨소리에 ‘옴쩍’했다.
희부옴한 빛살이 창틀에 걸려 갈라지듯
큰형이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으로 갈라졌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의 부고 소식은
팽팽하던 심연의 닻을 끊어 버렸다.
‘마지막 기항지가 사라졌구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순백의 면사포를 쓴 새신부처럼
수줍게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견에는 숨가쁜 마지막 순간을 증언하듯
산소호흡기가 놓여 있고

순백의 시트를 끌어 내리니
평온한 엄마 얼굴이 드러났다.

그때,
누군가의 흐느낌이 무거운 정적을 깨트리고
간간이 매미 울음소리가 창을 두드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엄마의 식어버린 살갗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제 나뭇의 미안함과 슬픔만큼
눈물을 떨구었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다 놓으며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다만, 거세지는 매미 울음소리를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꾸역꾸역 밀어 넣고 있을 뿐이었다.

작품평

엄마를 떠나보낸 자식의 마음을 대신하는 듯 매미가 울어댑니다. 매미는 7년 정도를 유충으로 살다가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열렬하게 누군가를 부릅니다. 마음껏 울 수조차 없는 마음.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을 뿐이라는…. 창문을 두드리는 이별의 마지막 인사가 애절하게 담겨있는 시입니다.

※ “테마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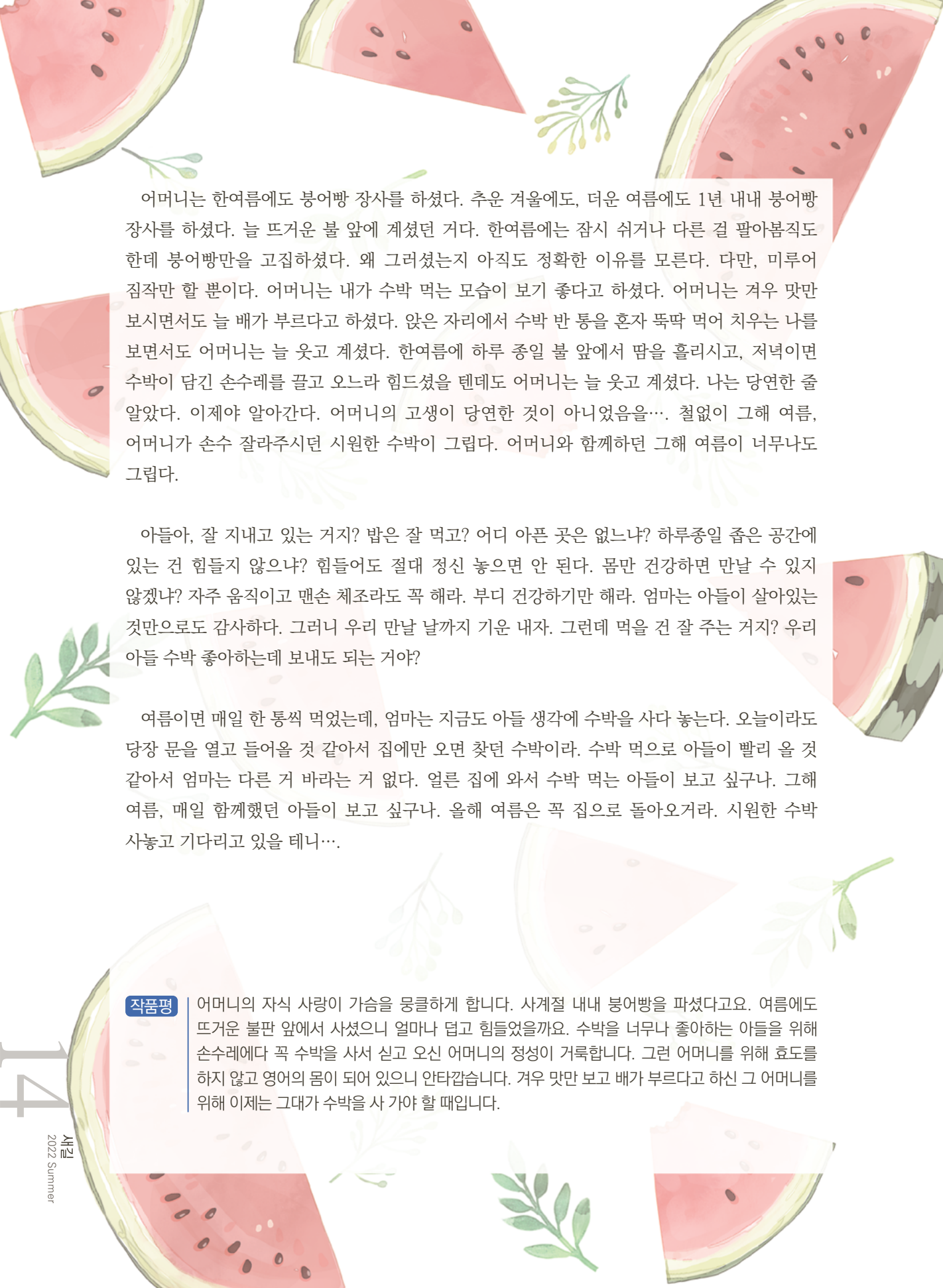
그해 여름

김채영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봉어빵 장사를 하셨다. 시골에서 자란 어머니는 나를 낳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시로 나오셨다. 부모님 세대가 거의 그렇듯 시골에서 자란 어머니는 배움이 짧으셨다. 배움이 짧아 몸을 움직이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다. 나를 키워내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시다 시장의 봉어빵 장수가 되셨던 거다. 산동네에 있던 집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다. 매일 아침 봉어빵 반죽을 만들어 손수레에 실어 나르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손수레의 무게가 줄어들 법도 한데 여름철에는 오히려 돌아오는 길이 더 무거웠다. 늘 수박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박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시원한 수박이 있었다. 학교 수업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늘 땀이 났다. 학교뿐 아니라 친구들과 놀다 들어가도 늘 땀이 났다. 우리 집은 산동네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걸어도 걷는 내내 오르막길이라 힘이 들고 땀이 날 수박에 없었다. 산동네를 오르는 길은 늘 힘들었지만 시원한 수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걷는 오르막길이 싫으면서도 수박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았다. 산동네에 살지 않았다면 수박 맛을 알았을까? 매일 힘들게 오르막길을 걷지 않았다면 과연 수박을 먹을 수 있었을까? 어린 마음에는 힘들었던 그 길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위안이라고 생각했다.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decorated with several slices of watermelon and green leaves. The watermelon slices are cut into triangular shapes, showing the red flesh and black seeds. The green leaves are scattered throughout, adding a fresh, summery feel to the design.

어머니는 한여름에도 봉어빵 장사를 하셨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1년 내내 봉어빵 장사를 하셨다. 늘 뜨거운 불 앞에 계셨던 거다. 한여름에는 잠시 쉬거나 다른 걸 팔아보실지도 한테 봉어빵만을 고집하셨다. 왜 그러셨는지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다만,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다. 어머니는 내가 수박 먹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겨우 맛만 보시면서도 늘 배가 부르다고 하셨다. 앉은 자리에서 수박 반 통을 혼자 푹딱 먹어 치우는 나를 보면서도 어머니는 늘 웃고 계셨다. 한여름에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땀을 흘리시고, 저녁이면 수박이 담긴 손수레를 끌고 오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어머니는 늘 웃고 계셨다. 나는 당연한 줄 알았다. 이제야 알아간다. 어머니의 고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철없이 그해 여름, 어머니가 손수 잘라주시던 시원한 수박이 그림다. 어머니와 함께하던 그해 여름이 너무나도 그림다.

아들아,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밥은 잘 먹고? 어디 아픈 곳은 없느냐? 하루종일 좁은 공간에 있는 건 힘들지 않느냐? 힘들어도 절대 정신 놓으면 안 된다. 몸만 건강하면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자주 움직이고 맨손 체조라도 꼭 해라. 부디 건강하기만 해라. 엄마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러니 우리 만날 날까지 기운 내자. 그런데 먹을 건 잘 주는 거지? 우리 아들 수박 좋아하는데 보내도 되는 거야?

여름이면 매일 한 통씩 먹었는데, 엄마는 지금도 아들 생각에 수박을 사다 놓는다. 오늘이라도 당장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집에만 오면 찾던 수박이라. 수박 먹으로 아들이 빨리 올 것 같아서 엄마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얼른 집에 와서 수박 먹는 아들이 보고 싶구나. 그해 여름, 매일 함께했던 아들이 보고 싶구나. 올해 여름은 꼭 집으로 돌아오거라. 시원한 수박 사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작품평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사계절 내내 봉어빵을 파셨다고요. 여름에도 뜨거운 불판 앞에서 사셨으니 얼마나 덥고 힘들었을까요. 수박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손수레에다 꼭 수박을 사서 싣고 오신 어머니의 정성이 거룩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효도를 하지 않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겨우 맛만 보고 배가 부르다고 하신 그 어머니를 위해 이제는 그대가 수박을 사 가야 할 때입니다.

그해 여름



엄은우

가도 가도 끝없는 직선으로만 달리는 기차길이 어느 순간 이리 휘어지고 저리 구부러져 서로 만나는 교차선로의 이미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도 서로 모르는 타인으로 살아가다가 선로가 겹쳐지듯 예기치 않게 만나서 평생 모른 채 살았더라면 너무나 아까웠을 소중한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그해 여름, 사내교육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듣고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추는 게임에서 아무도 못 따라갈 실력으로 1등을 해서 상품권을 받은 그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불러본 지가 언제인지 싫을 정도로 노래에 관심이 없었던 저로서는 저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그녀가 신기하게 느껴질 뿐, 그저 등산과 자연을 좋아해서 산 근처에 있었던 회사 주변의 풍경을 계절마다 아름답게 바뀌는 모습을 사진에 담는 것이 저에게 다가오는 유일한 행복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싱그러운 여름 신록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는 퇴근길 풍경을 찍던 저의 폰 카메라 속으로 저를 지나쳐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함께 찍힌 가로수길 풍경 사진은 너무나 괜찮은 분위기로 나와서 뜻밖에 작품사진을 건진 기분이었고, 저와는 다른 세계에 있던 그녀가 저의 사진 속 세계로 걸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서 회식이 있던 날,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그녀의 옆의 여직원과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왔고, 저는 제가 찍었던 풍경 사진 속 그녀 생각이 나서 따로 사진을 보내주었더니 마음에 든다고 고마움을 표현한 그녀는 선물로 노래 한 곡을 보내주었습니다. “천사와 커피를”이라는 그 노래는 처음 들어보았지만 여러 번 듣다보니 정말 오랜만에 흥얼거려 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토요일 주말근무를 함께 하게 된 그녀와 저는 퇴근길에 시원한 커피 한 잔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녀와 헤어져 집으로 가는 길은 “천사와 커피를”이라는 그 노래가 현실이 된 느낌에 절로 그 노래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 날 이후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함께 마시고 그녀가 보내주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오래전에 없어진 저의 감성도 조금씩 깨어나 그녀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내공간보다는 숲길 산책로나 공원 등에서 커피 한 잔씩을 들고 걸으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자연 속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행복했고 노래도 함께 들으며 대화하는 시간은 즐거운 추억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빗속을 돌이서”라는 노래를 보내온 후 비가 오면 실제로 우산을 같이 쓰고 함께 걷게 되었고,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노래를 보내오면 휴일 산행이나 호숫가 소풍을 함께 가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게 되고, 별빛아래 로맨틱한 분위기 노래를 보내오면 여름밤길 산책을 함께 하게 되면서 노래 가사가 현실로 바뀌는 설레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싱글의 삶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나이 차인 나더라도 힘이 되는 친구가 되어준 그녀였지만 가끔 슬픔에 빠진 듯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는 저는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든 어느 날, 만나서 말없이 걷다가 헤어지기 전, 그녀는 마음 속 힘든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해주었고 그녀는 저 같은 친구가 있어 다행이라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었고 예상치 못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낸 뒤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채 구속이 되었습니다. 끝내 차마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만나던 전 남자 친구의 비극적 사고에 이어

저마져 불행한 결말로 끝나게 되는 상처를 그녀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다가오는 여름 지난해 여름 시작된 그녀와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려보며 평행선을 달리던 철길이 만나서 합쳐지기도 하고 엇갈려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멀어 지기도 하듯 인생행로에서 삶이 교차하며 행복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추억을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먼 훗날에도 좋은 추억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래봅니다.



작품평

사내 커플로 만나 축복 속에 결혼도 할 수 있었을 것을. 그대가 형을 살게 되었으니 더욱 맺어지지 못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상처를 지니고 있는 그녀에게 다시 상처를 줄 수 없었다는 그대의 마음을 그녀가 이해해줄 겁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가 열심히 살아가면 다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래를 좋아하는 그녀를 노래방에 데려가서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과 <빗속을 돌이서>를 들려주기 바랍니다.

어느 여름날들



임동한

평소의 일상처럼 그 날도 나는 회사에 출근하였고 아내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치과 예약하여 방문한다고 하던 아내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 입을 옷가지를 가지고 서울 ○○○○병원으로 오라고 하면서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내가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였으나 큰 병원에 가야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순간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뇌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사실은 2013년도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가슴에 묻었던 병원이라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담당의사 선생님과 상담결과는 상상하기도 힘든 후천성 백혈병이란 진단이 나와서 방사선 치료가 급선무이며, 가족들의 골수검사를 진행하였다. 골수검사결과 아무도 아내를 도와줄 수가 없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 입구에서 전신소독과 방균복으로 갈아입고 병실에 들어서니 안쪽 끝 침실에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손발이 떨리면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하얀 투명비닐 천막으로 감싸고 있어 순간 겁이 많이 났지만 비로소 아내가 아프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내가 있는 병실은 무균실로 보호자 면회는 하루에 30분밖에 안 된다.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힘들고 아픈 방사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도 아내가 잘 견뎌서 1차 치료를 무사히 끝냈다고 하셨다. 2차 부터는 방사선 치료가 1차보다 배로 힘들고 정말이지 고통의 나날들이 되겠지만 힘내서 치료하고 골수이식을 기다려 보자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2차 방사선 치료 전 2주간 휴식과 체력을 회복하면서 치료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아내와 함께 집으로 왔다. 집에



들어서니 장인, 장모님께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다. 참으로 오랜만에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아 아내 체력보충을 위해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는데 아내는 그리 잘 먹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뒤 아내는 침대에 있던 작은 사진을 들고 와서 사진 속 네 사람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고 했다.

장인어른께서 병간호에 지친 나에게 소주 한잔을 따라주시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나는 아버님께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단 인사와 방사선치료 끝나고 골수 이식 후 퇴원하면 공기 좋은 시골에서 아버님 어머님 모시면서 살겠다고 말씀드리자 두 분께서 시골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내와 병원으로 가는 도중 차안에서 갑자기 방사선 치료가 힘들고 골수이식 또한 쉽지 않은데 하면서 걱정이 많다고 하였다. 힘겨운 방사선 치료 중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옆 침대에 20대 초반 여성이 입원했다. 완치 후 퇴원하였는데 골수암이 재발하여 방사선 치료 도중 사망한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음식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면서도 힘겹게 치료도중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두고 그렇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나기 전 아내의 몸무게는 36kg이었으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은 쇠약했지만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던 아내의 얼굴이 기억난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2년 되던 해 ○○추모공원에서 아내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아내를 뒤로 하고 두 분과 근처 식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버님께 술 한 잔 따라드리고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전하는데 오히려 나의 안부와 내가 혼자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시고 안타까워 하셨다.

아버님께서는 아직 젊은 나이니까 우리 딸 그만 잊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새 출발하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 50세까지만 도시에서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고 51세가 되면 도시와 미련 없이 작별하여 처가에 내려가 네 식구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아내와 약속하곤 하였는데...

인생이란 참 뜻대로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2023년 01월에 출소예정인 임동한입니다.

처음 수감 되었을 때만 해도 제 자신이 펜을 들고 이렇게 글을 쓸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높고 높은 담장이 있는 교도소에 있다는 게 미칠 정도로 힘들었지만 늦은 밤 조용히 글을 쓰며 자고 있는 거실식구들을 보니깐 이젠 정말이지 형제 같습니다.

이제 출소 후 다시 한 번 용기 내어 제일 먼저 아내를 보고 주변을 살핀 다음 정리하고 시골에 계시는 장인, 장모님을 찾아뵙고 그 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네 식구가 함께 여행가서 추억을 쌓았던 그 곳에서 이제는 셋이서 또 다른 추억으로 채우고 그 동안 못다 했던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일들을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늘 매년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고 살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서 어느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해서 7년 동안 사랑하고 행복했으며 가장 힘들고 아파했던 2015년 7월 그 해 여름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며 앞으로 계획대로 사회에 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길 희망합니다.



작품평

후천성 백혈병이란 병마가 찾아온 아내를 저세상으로 보내기까지의 과정이 눈물겹게 전개됩니다. 36kg까지 몸무게가 줄어드는 아내를 지켜보며 그대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다면, 사별이 가슴 아팠다면, 영어의 몸이 되지 말았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인, 장모님 찾아뵙고 새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면 되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한 여름 막내딸과의 약속

김태영

너무나 더운날 소나기가 지나간 후 습하고 더운 열기로 온 몸을 땀으로 젖은 토요일 오후 전화가 울려서 받으니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아빠 어디야?”, “응 아빠 공장인데, 우리 딸 데리러 가려고”, “오늘 태권도 방학이라 안갔어”, “심심해 빨리 와요 아빠”, “알았어, 빨리 갈게”

공장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자금 회전이 안되다 보니 운영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 어린 딸에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에 너무 미안하여 서둘러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오니 폴짝 뛰어와 목을 안으며 뽀뽀를 한다. “아빠 냄새난다. 저리 가 우리 딸” 냄새 안나는데 하며, 반겨주는 우리 막내딸 애교 덕분에 고단하고 힘들었던 하루의 피로가 가시는 느낌이였다.

엄마 없이 벌써 1년이 넘었지만 한번도 엄마를 찾는 일이 없고 해맑게 잘 자라주고 아빠만 찾는 딸아이의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빠! 친구들 휴가 간다고 놀러간다고 없어, 우리도 휴가가면 안 돼?” 하는 딸아이 말에 생각해보니 넷째 막내딸이 태어나고 어디 한번 놀러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침 너무 더워 공장 직원들도 이번 주 일요일 쉬자고 했기에 그래가자 하며, 첫째와 둘째, 셋째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 약속이 있다고 안간다고 한다.

하기야 대학생 큰애 고등학생인 둘째, 셋째가 따라다니지 않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단번에 거절을 당하니 막내딸이 “그럼 우리 안가는 거예요?”하며 시무룩해져 쳐다보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귀엽던지 우리 예쁜 막내딸하고 둘이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도로 놀러갔다. 그곳에 아는 후배가 있고 해서 연락을 했으나, 서울에 일 때문에 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바위 근처에 숙소를 잡고 ○○바위에서 사진도 찍고 바다냄새 맡으며 마냥 좋아하는

막내를 보며 흐뭇했다. 근처 어시장에 가서 구경도하고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해물칼국수 먹고 있는데 어시장 건어물집 아줌마가 “엄마는?”하는 질문을 딸에게 하는 것에 내 스스로 죄인이 된 것 같고 딸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했는데, 그런 질문에 막내딸은 내 눈을 마주보며 ‘나 괜찮아’하는 눈빛을 보이는 것에 마음이 울컥해지는 것을 참기도 했다.

우리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서글프기도 하고 바닷가를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 뭐해요?”하며 뒤에서 꼭 안아주는 딸을 다시 뒤돌아 꼭 안고는 “아빠가 미안해 우리딸 외롭게 해서, 엄마 없이 자랐다고 하는 말 듣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많이 많이 사랑해줄게” 하며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어린 딸아이와 약속을 한지가 벌써 9년이 지나고 우리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입학식에도 중학교 졸업식에도 못가는 아빠가 되어 있다. 부모로서 부모된 도리를 못하고 그 책임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후회스럽고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픈 오빠를 챙기며 가정일과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우리 딸에게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그 뜨거운 여름날 어린딸을 안고 내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하는데 안타까울 뿐이다. 얼마 있으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인데 그때가 되면 더욱 사랑하는 우리 막내딸이 그리워질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성실한 아빠가 되어 그 바닷가의 약속을 되새기며 책임을 다하며 그동안 마음 고생한 딸을 위해 위로해 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작품평

자녀를 네명 두었는데 대학생 큰애와 고등학생 둘째보다 초등학교 2학년 막내딸이 더욱 귀엽고 애뜻했습니다. 엄마는 막내가 1학년 때 돌아가셨는지 집을 나갔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린 막내만 데리고 ○○도 바닷가에 갔었다고요. 그 여정을 바깥에 있는 딸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빠가 미안해. 우리 딸 외롭게 해서. 엄마 없이 자랐다고 하는 말 듣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많이 많이 사랑해줄게.’ 마음속으로 약속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한 지 9년이 지났다고요. 딸의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에도 가지 못한 아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글에서 한 약속은 꼭 지키길 바랍니다.



그해 여름



심광철

저의 추억이 된 “그해 여름”은 유년시절로 다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사실 저는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시골마을에서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옛 함경도 현 양강도 백두산 근처라고 설명 드리면 이해가 잘 될듯 합니다. 함경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곳이어서 사계절 중 “여름”이 으뜸입니다.

조선시대 고위 관리들의 유배지이기도 하고, 이성계의 고향이자 유배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들 이방원의 권력 탐욕에 의하여 한동안 유배 못지않은 삶을 우리 역사책에 옮겨놓은 곳입니다. 높은 해발고도로 인한 추위와 가파른 산과 돌로 이루어져, 옛날부터 살기가 척박한 땅입니다. 시월이면 시골집 처마에 고드름이 내리고, 봄꽃이 지고 초여름까지 눈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하여 여름은 신의 축복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함경도입니다.

간단히 저의 가족을 소개하면 늘 자상하신 아버님과 온 몸이 그대로가 사랑이신 어머니, 동화속의 주인공처럼 멋진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제가 세 살이 되던 1990년 그해 여름 온 가족의 축복 속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훗날 좀 서운하긴 했지만 어머니는 동생이 꼭 자신을 빼 닮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철없는 저는 “그럼 나는 누굴 닮았냐고!” 펄펄 울며 온 가족을 한바탕 웃기기도 하였습니다.

늘 동생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 학교에서 내 준 과제집을 다 학습하고 저녁밥이며 설거지는 물론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는 반면, 저는 그와 반대로 집에 오면 책가방을 방구석 어딘가에 확~ 집어 던지고 고양이 생선 건드렸다가 쫓기는 생쥐처럼 꼬리를 사리며 도망다니기 바빠서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동생의 참한 소행들을 눈 감고 아웅~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동생도 아닌 형인 제가 왜 그랬는지 너무 부끄러워 말을 옮기기조차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지금껏 숨겨왔던 저의 유년시절 비밀이야기들을 “새길” 문예작품 공모전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저의 지난 세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어느 소설의 주인공이었으면 저는 이미 댓글 폭탄세례를 맞아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형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사냐고?” 이제 다시 지나온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제가 다하며 동생한테 떳떳한 형이 되고 싶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저에게 동생은 소꿉놀이 친구이기도 하였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저와 동생은 시원한 계곡에 몸을 던지며, 계곡에서 서식하는 가재와 민물장어, 메기 등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생태계에서 자라는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 장작불에 구워 먹으며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즐거운 여름의 한 때였습니다.

성인이 다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해 여름”처럼 아름다운 추억들을 되새기며.... 매일 매일 깊은 참회와 반성으로 수형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은 이 못난 죄인에게도 예쁜 조카들이 생겼답니다. 조카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러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카들 이 삼촌이 많이 사랑해.... 통일의 그날까지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커야 돼~~

동생은 시원한 성격과 잘생긴 것도 모자라 공부도 전교 10등 안에 들며, 지금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동생은 하나부터 열, 백까지 다 잘하는 우리 가족의 슈퍼맨이었습니다. 지금은 외할머니와 장모님도 따로 모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 못난 형을 자책하게 만드는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없으면 여름이 그리 반갑지 않은 것처럼 추운 겨울이 있기에 따뜻한 봄과 여름이 기다려집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있기에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봅니다.

답답하고 모든게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아해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나의 여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곳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 것입니다.

올해는 아버님의 환갑이 되는 생신인데... 제대로 된 인사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 불효자를 용서하여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북에 계신 모든 가족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품평

함경도 양강도 출신이면 탈북자가 아닌가요. 형제간의 우애가 여간 돈독하지 않았네요. 의사가 된 동생과 사랑스런 조카들 얘기가 나오는데 남한에 와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환갑이 되신 아버지께서는 그대 생각에 눈물짓고 계실 겁니다.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할 그대가 왜 그곳에 계시는 겁니까.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 통일의 일꾼이 되기 바랍니다.

그해 여름에는



박정주

2001년 그해 여름, 저는 최전방 철책 GOP 부대에 있었습니다. 6개월 마다 부대가 교대로 투입되고 철수하기를 반복했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1년으로 바뀌었다보니 전에 있던 이들보다는 더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야, 후반야로 나뉜 두 조가 밤 근무를 서면서 초소 근무자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30분마다 근무를 교대하는데 그러다보니 OO산이라는 섹터를 담당하고 있던 우리는 4~6시간의 근무시간에 산을 3~4번은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철책이다 보니 군인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야간에는 정식근무를 서고 주간에는 대공근무와 섹터정비 같은 작업 등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병들이 들어오면 살이 쭉쭉 빠지고, 머리를 베개에 대기 무섭게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경험을 꼽자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근무 끝나고 철수하는 도중의 해가 뜨는 모습, 산과 산을 타고 흐르는 운무와 DMZ 평야 멀리서부터 비가 다가오는 모습 등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에 투입되려던 그 날은 이제 막 장마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중대 OP에서 각 소초(소대)로 명령이 하달됐고, 그 내용은 우리 중대 섹터가 북한군 침투가 유력한 지역이라는 첩보로 섹터 경계등을 끄고 두 달간 근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진 30분 뒤 사수와 부사수 2인 1개조를 한 팀으로 경계근무에 투입되고 해가 완전히 저물자 우리는 암흑에 빠졌습니다. 후반야 근무자가 빠지고 전반야 근무자 몇 팀이 주요 초소에 남아 근무를 쉰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날 오후 작업을 하여 다들 지치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방탄헬멧에

부착된 야시경(개인야간감시장비)으로 주위를 살피야 했고 TMO(고성능야간감시장비)로 전방을 주시해야 했지만 비가오고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그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굉장히 예민해지곤 했습니다.

경계등이 꺼지고 며칠 후부터인가 부사수들이 이상한 장면들을 목격했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는 등, 근무자가 들어가지 않는 가초소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등, 또는 초소지붕에서 누가 자신을 살짝 보고 다시 올라갔다는 등의 내용이었지만 하나같이 이등병들의 말이었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까 기가 약해져 헛것을 보는가보다 했습니다. 그만큼 근무환경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철책이란 곳에는 이런 기이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2주정도 계속되자 우리는 정말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과 철책의 특성상 누군가의 침투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기에 중대 OP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 그 날, 경계근무에 들어가고 초소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 저의 부사수가 야시경으로 주위를 살피던 중 교대 근무자가 올라오는데 두 명이 아니라 여덟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여 부사수에게 여덟 명이 맞는지 물었고 부사수는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암구호를 대며 근무교대를 했습니다. 교대한 근무자에게 뒤에 따라오던 나머지 여섯 명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들은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없었고 둘만 왔다고 하여 혹시 몰라 소초 상황병에게 인터콤으로 물어봤지만 이동 중인 병력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사수에게 분명히 본 거 맞는지 물어보았고 자신은 한 명, 한 명 똑바로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은 들었지만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A초소에 투입되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이라 가까운 거리밖에 볼 수 없어 소리로나마 주위를 살피기 위해 초소문을 열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부사수가 야시경으로 주위를 살피던 중 근무자가 투입하지 않는 가초소인 B초소에 누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여섯 명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것은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상황병으로부터 그 어떤 통보도 없었기에 저는 혹시나 북 침투 인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초소 밖으로 나와 부사수와 엄폐를 하고 야시경으로 B초소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 잠시 후 다시 야시경으로 초소를 살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인터콤으로 상황병에게 연락해봤지만 이동 중인 병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소초장님께 보고하라고 하고 저는 부사수에게 엄호를 맡기고 초소 뒤쪽으로 돌아 B초소로 향했습니다. A초소와는 불과 20여 미터. 안개는 자욱했고 바람은 강했습니다. 어두움으로 제 손이 어디 있는지 분간도 되지 않았지만 야시경으로 본 전방은 온통 초록색으로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초소 앞으로 이동해 소리를 들으려했습니다. 그러나 정적뿐이었고 그 어떤 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초소의 문 쪽으로 이동해 무엇이 있을까 긴장하며 야시경으로 그 안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초소 안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탓에 흙먼지와 나뭇가지가 많았고, 언제 사용했는지 모를 총 거치대만이 자신이 할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초소 주변을 돌며 이상한 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저는 A초소로 돌아가 상황병에게 알렸습니다. 바로 뒤에 소초장님과 부소초장님, 그리고 후반야 팀들이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등병들의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 날 A초소 근무를 췌던 이들 중 두 팀에게서 B초소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중대 OP로까지 알려졌고 중대장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방 근무에 철저히 임하고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후 근무자 모두에게 무전기가 지급되었고, 총은 장전된 상태로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무시 암구호와 합구호가 더욱 철저해졌고, 전방은 물론 후방과 측방까지 경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후로 몇 번 더 불가사의한 일들이 보고되자 후방 CP에서 결국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10여명의 조사단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B초소와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조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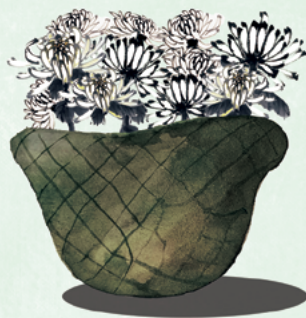
근무를 마치고 조사단이 파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는 식당에 모여 밥을 먹으며 이등병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습니다. B초소 자리에 무덤이 있었는데 초소를 지으면서 무덤을 덮어 그 무덤 주인이 귀신이 되어 나오는 것이라는 의견과 초소 밑에 북한군 땅굴이 있어서 어두울 때 몰래 나와서 살피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B초소를 우리가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B초소에 마법을 걸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 짐작들이 난무하던 가운데 조사단에서 무엇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초장님과 각 분대장들이 B초소로 향했고 그곳에는 중대장님과 대대장님도 어느새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초소 앞에는 흙이 잔뜩 묻은 여섯 개의 두개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사단이 초소주변을 조사하던 중 초소 바로 옆에 쌓아둔 흙 두덩이 이상해 파헤쳐

보았고 거기서 두개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개골의 상태를 봐서는 6·25전쟁 때의 것인 것 같고 처형당한 것 같으며 두개골의 충상을 가리켰습니다. 중대장님은 소초에서 과일과 음식이 있으면 가져와 제사를 지내자고 하였고, 한 시간 후 간소하게나마 여섯 개의 두개골을 앞에 두고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사단은 여섯 개의 두개골을 모셔갔고 우리는 그들의 혼령이 초소에 남아 아마도 자신들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우리에게 알리려 그랬던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B초소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전방상황은 다시 완화되어 경계등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의 경계근무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에 자랑스럽게 매일 아침 일출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해 여름을 생각하면 부족한 잠과 더위에 힘들었고 근무에 지쳐 고개가 설레 설레 흔들어지지만, 근무를 서면서 바라보던 무수히 많은 별들과 반딧불이 그리고 전우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지금쯤 그 유골들은 가족을 찾았을까? 그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을까? 또,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의 생사도 모르고 얼마나 오랜 기다림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전쟁이 나던 그해 여름, 순국선열들은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의 명복을 빌고, 지금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겪는 전쟁이 더 이상의 피해 없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랄뿐입니다.



작품평

2001년 여름 최전방 GOP에 근무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는데 결국 조사단이 와서 여섯 개의 두개골을 발견하게 되지요. 간단히 제사를 지내자 이상한 일들이 거짓말같이 뚝 그치고 평소의 일상을 회복합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게 하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 명의 한 맺힌 이들의 혼이 그곳을 떠돌고 있었다고밖에 얘기될 수가 없네요.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 타인의 가슴에 한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이미 죄를 지었다면 속죄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찬란했던 그해 여름

이상진

시간은 자신을 태우는 불, 이라고 보르헤스는 말했다. 주황색의 너울거리는 모닥불과 함께 나는 밤새 기억을 태웠다. 적막한 사위속에서 기억의 편린을 깎아내고 그것을 이끌거리는 시간의 불 속으로 던졌다. 농밀한 어둠아래 세상은 깊이 잠들어 검푸른 정적만이 내려앉은 시간.

나는 기억의 편린이 타들어가서 검부터기로 전소되는 모든 순간을 주시하며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필연에 대해 생각했다. 2005년, 스무 살의 초여름이었다.

밤낮없이 치열하게 공부하여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다. 바라보고 느끼는 모든 순간과 모든 것이 좋았다. 아름다운 캠퍼스 안 흐드러지게 핀 색색의 꽃들, 담쟁이 덩굴로 둘러쌓인 신비한 학교 건물, 중앙 도서관 서가의 오래된 책 냄새, 활기 넘치는 ○○거리와 학교 옆 ○○동의 이쁘고 작은 카페.

아름다운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이 무렵이었다. 동아리 활동 중 알게 된 그녀는 근처 여대 학생이었다. 그 시절의 나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 질문했고, 정해지지 않았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꼈으며, 궁극의 지성은 구원의 다른 이름이라 여겼다.

그녀는 걱정으로 가득한 나를 이해해주었고, 무한한 시대에 유한하게 사유하는 나를

감싸안았으며, 나는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 시절 나는 철학에 심취해 있었고, 문학 속에서 삶을 찾고자했다.

존경하는 담당 교수님의 훌륭하고 현명한 가르침으로 나는 집요하게 공부했고, 내 머릿속을 떠돌던 수많은 사유는 점차 언어로 정리되어 내면으로 가라앉았다.

그녀에게선 재스민의 향기가 났다. 그녀는 나에게 아름다운 시와 오래되고 빛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상 속에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녀와 나는 자아를 넘어 서로의 내면으로 들어가 안식을 취하고 각자의 소중한 세계를 느꼈다.

그렇게 행복한 일년이 지나갔다. 다시 찾아온 여름, 한낮의 무더위를 보상하듯 세찬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었다. ○○의 한 건물 처마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길바닥에서 튀어 오른 빗방울이 바지 밑단을 적시고 있었다. 활엽수들의 진한 수액냄새가 번져왔고, 그녀는 어두운 얼굴로 나타났다.

가족 전부가 파리로 이민을 간다고 했다. 불안해하는 나를 안심시키려 그녀는 설명했지만 나는 이별을 예감했다. 그녀와 나누었던 사소한 행동과 말은 이별 앞에서 거대한 목적과 원인으로 전달되어 서로의 마음을 활귀었고, 영혼의 깊은 상처로 남았다. 나는 절망의 심연으로 침전하고 있었다.

그 황폐한 시간 속에서 나는 그저 전해지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둔 편지처럼 방치된 채로 비참한 마음과 마주하며, 그녀와 함께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이루었던 것들에 대한 기억 속에서 침잠했다.

힘들어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여행을 다녀오라 말씀하셨다. 곧 여름방학이었고, 나는 큰 배낭을 메고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바라나시에 도착해 집을 풀고 산산 조각난 마음과 함께 성스러운 갠지스강, 강가로 향했다. 새벽 어스름 속을 홀로 걸으며 강가에서 많은 것들을 목도하고 마주했다. 강 양 옆의 화장터에서는 화장을 마친 시신을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냈고, 그 사실에 개의치 않고 사람들은 강가에서 목욕하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여겼다. 어린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 순간 빨간 빈디를 짙은 기도하는 이와 눈이 마주쳤다. 남루한 옷과 온갖 먼지로 더럽혀진 머리카락,



뜨거운 여름 태양에 그을린 얼굴.

그러나 기도하는 이의 눈은 가늠할 수도 없이 깊고 광활한 내면을 가진 성숙한 영혼의 눈이었다. 문득 넓은 바다가 보고 싶어졌고, 나는 뭄바이(Mumbai)를 지나 고아(Goa) 해변으로 향했다. 70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기차를 탔다. 새벽에는 웅크리고 추위에 떨었고, 중간에 기차가 멈추면 따뜻하고 소박한 짜이(chai)를 마시며 몸을 녹였다.

긴 시간의 여정에서 쏟아질 듯 무수히 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았고, 차창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하얀 달빛을 바라보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 푸른 들판을 지나 무성히 피어있는 수국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곤 했다.

도착한 고아 해변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키 큰 야자수 사이로 펼쳐진 해변에는 반짝이는 산호 조각들이 흩뿌려져 있었고, 그 위로 하얀 포말을 만들며 부서지는 파도가 아름다웠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미끌어지듯 항해하는 작은 범선 뒤로 펼쳐진 수평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다.

그곳에서 점차 불안은 가라앉고 내면은 고요해졌다. 그해 여름은 아프고 눈물겨웠지만 눈부셨다. 그 시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사실은 내가 맑고 투명한 청춘이란 계곡에 발을 담그고 폴꽃처럼 세상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후 긴 세월이 순탄히 지나갔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좋은 학연과 소중한 이들의 도움으로 승승장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된 성공 속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커져만 갔고, 사업 중 발생한 법적 공방 끝에 결국 구속되었다.

구속된 이후 시련과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낸 지금, 현재의 나는 비로소 조금 더 지혜로워진 입으로 내 자신에게 성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성숙은 고귀한 방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럽고 불안하며, 가족과 사소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시간들도 나의 성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지금의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을 반드시 전하고 싶다.

‘물질적 풍요만으로 결코 당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깊어진 내면은 이미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지금의 시련에 주저앉아 삶을 포기할 만큼 우리의 삶은 가볍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한다.

독일의 폭탄이 런던에 투하되던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은 이젤을 펼쳐 템스 강변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고,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포병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전쟁 속에서 그의 책 「논리 철학 논고」를 완성했다.

인간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로써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이며, 그러한 시련의 극복과정 속에서도 ‘지성’이란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길이 아닌 더욱 위대한 ‘새길’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그것이 법무부 수용자 종합문예지 ‘새길’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지성적 가치라고 굳게 믿는다. 바다 위의 굳건한 항해사는 항로 위에서 목표지점을 변경하지 않는다. 신념 있는 여행자는 여정 중에 길을 바꾸지 않는다. 나를 포함하여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은 굳건한 항해사이고 신념 있는 여행자다.

때론 우리는 항로 위에서나 삶이란 여정 중에 길을 잃을 수도 있을 테지만, 반드시 올바른 자신만의 길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목표지점이 아니라 항로위에서 마주하는 경험과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스무 살 빛나던 그해 여름에, 내가 동경했던 베르길리우스의 문장으로 이글을 마친다.

“No day shall erase you from the memory of time.”

“그 시간의 기억에서 당신을 지우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작품평

여자친구의 가족이 전부 파리로 감으로써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어머니의 권유도 있고 하여 인도로 배낭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인도 여행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깨달았다면 좋았을 것을. 인도에서 인과응보를 배우고 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인간은 실수를 저지른 뒤 반성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값진 보약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해 여름이 생각난다, 뉴질랜드의 여름이

박정현

그해 여름이 생각이 난다. 나의 고향, 사랑하는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라는 곳으로 떠난 지 10년이 되던 해, 그해 여름이 생각이 난다.

그때 나에게는 대학교 선배이자 친형과 다름이 없던,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던 친한 형 두 명이 있었다. 의지할 곳이 마땅히 없던 나에게 두 형들은 부모님 같은 가족이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고국과 가족이 생각나 보고싶을 때 우리 셋은 근처 바다를 갔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바다는 사람들이 한적했고, 우리는 말없이 백사장을 걷고 또 걸었다. 걷다가 지치면 조그만 테이블이 있는 푸트트럭에 가서 맥주 한 캔과 생선튀김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씹쓸한 맥주 맛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향수병에 걸린 씹쓸한 나의 마음 같았다.

그렇게 그 바다에서 때로는 웃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십년이 가고 세월이 지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다시 그때 그 바닷가로, 그 추억 속으로 가고 싶다. 그때 그해 여름이 생각이 난다. 그해 여름이, 그 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이 호화스럽고 마냥 좋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십년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갔을 때는 언어가 문제였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던 의사소통이 되어야 제대로 된 생활이 가능할 터인데 언어는 내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영어 사전을 들추며 단어를 공책에 쓰면서 외웠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서 외국에 나갔지만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래도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많은 단어를 빠른 시간내에 암기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일년, 이년이 지나갔다. 뉴질랜드의 고등학교 입학은 기본적인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시험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나는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다.

대학시절 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셔서 영어에 능숙한 아버지는 일기를 매일 영어로 써보라고 하셨다. 평생을 살면서 일기를 써본 적이 없던 나에게 일기를 쓴다는 것은, 그것도 영어로 일기를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 첫 일기는 엄청나게 단순했다. 몇시에 기상을 하고 아침 식사는 몇시에 먹고 잠은 언제 잤는지 단순한 일 위주로 영어 일기를 썼다. 영어 사전을 옆에다 두고 틀린 부분을 찾아가면서 일기를 썼고, 이메일로 아버지에게 보내면 문법이나 어휘에 맞지 않은 단어들을 아버지가 수정해서 답장을 해주셨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단순했던 일기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동시에 나의 영어 실력 또한 늘었다. 일기를 쓰는 습관으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통과하게 되었고, 의사소통이나 문법에 큰 어려움이 없이 학교를 다녔다.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나는 영어 일기를 적어서 아버지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대학생 때는 훨씬 더 사건들이 많았고, 영어 일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풍성해졌다. 그렇게 첫 번째 숙제이자 관문이었던 언어라는 장벽을 하나하나 허물어가며 6년차가 되던 해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능숙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관문은 음식이었다. 고기와 생선, 빵, 면이 주식인 뉴질랜드에서는 아침엔 주로 샌드위치를 먹고, 점심에는 파스타나 햄버거를, 저녁에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였다. 기름진 고기나 튀김류는 생각보다 빨리 질려 음식을 먹는 일이 두 번째로 힘이 들었다.



매일 아침 샌드위치를 먹을 때마다 나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등 여러 한국 음식들이 생각났다. 한국에서 엄마가 늘 해주시던 된장찌개, 햄을 넣고 삼겹살을 넣고 가끔은 참치를 넣었던 김치찌개가 그리웠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해주시던 그 김치찌개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건지 나 자신도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고 또 나의 힘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힘들 때 친형 같았던 두 형이 없었더라면 또 부모님께서 이메일로 나를 옆에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어려운 힘든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옆에서 묵묵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조언해주며 내가 힘들 때 따뜻한 한마디 해줄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하고 힘이 되는지 그때 나는 뼈저리게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해 여름이 생각이 난다.

세 번째 관문은 문화였다. 언어와 음식도 큰 문제였지만, 한국과 많이 다른 문화 또한 나에게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식사를 할 때도 한국 가족처럼 김치찌개를 같이 떠먹는 그런 음식문화가 아니라 각자 요리를 자기 그릇에 먹을 양만큼 담아 먹는 것이 뉴질랜드의 음식 문화였다. 그런 음식 문화가 생소하고 어렵고 때로는 많이 불편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자기가 먹은 음식은 각자 설거지를 했다. 한사람이 설거지를 끝마쳐야 다음 사람이 할 수 있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루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샤워 문화 또한 많이 달랐다. 고등학생때 나는 홈스테이(home-stay), 말하자면 하숙집에서 살았는데 크게 한번 사람들과 말다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

화장실과 샤워실에 치약과 비누와 샴푸가 비치되어 있어 처음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인 줄 알고 사용했다. 밖으로 나오는데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짜고짜 왜 자기 치약, 비누, 샴푸를 허락없이 썼냐고 따지는 것이었다. 나는 당황스러워 한국의 공동생활과 공동사용을 설명하고, 이곳에서는 샤워용품을 각자 따로 사용하는지 몰랐다고 자세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하여 화를 냈다. 나도 화가 많이 나서 밖으로 나가 새것으로 사주고 기분이 많이 상해 하숙집을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사했다. 새로 이사 간 하숙집에서는 식사도

같이하고 공평하게 부담하여 한국에서처럼 지내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세 번째로 힘들었던 문제가 뉴질랜드에서의 새로운 문화였던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던, 마땅히 대책이 없었던 일이 바로 인종 차별이었다. 백인 비중이 큰 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 심했는데, 그런 국가 중 하나가 뉴질랜드였다. 내가 당한 인종차별 중 하나는 길을 걷는 중에 차를 타고 가던 백인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내 머리에 썩은 계란을 던진 것이다. 내 머리를 맞고 깨진 계란이 흘러 옷을 버리고 심한 악취로 고생하였다.

또 바닷가에 놀러갔을 때 누군가가 일부러 승용차에 펑크를 내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있었다. 십년동안 많은 차별행위와 멸시를 당하는 일이 싫었지만 참아야만했다. 그것이 우리는 너무 힘들었다. 인종차별을 당하는 일이 단순히 나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화가 많이 났다.

언어문제와 질리는 생소한 음식문화 그리고 인종차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에 힘들어하며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향수병이 커지고 우울증도 왔다. 너무 힘들 때 형들은 나를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형들이 있었기에 그 별 볼일 없는 바닷가가 다른 어떠한 크고 화려한 바다보다 좋았었고 평생 나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멋진 추억의 바다가 되었다.

그 해, 그 여름, 그때의 뉴질랜드 바다가 지금 이순간에 또 생각이 나고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작품평

뉴질랜드 유학을 꽤 일찍 떠난 모양입니다. 언어 문제, 음식 문제, 문화적 차이로 고생을 엄청나게 했군요. 하지만 친한 두 형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고생을 다 이겨냈는데 무슨 죄를 지어 그곳에 있는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곳에서의 나날이 힘들 때마다 뉴질랜드에서의 시련을 생각하십시오. 시련과 극복. 멋진 제3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해 여름



홍지환

붉은 나이트가 만들어진 해는 부성하고 화려하게 피어났던 해이고, 나이트가 가늘었던 해는 거센 공격과 가뭄을 이겨낸 해입니다. 아마도 우리 가족에겐 2005년이 가장 가늘었던 나이트를 만든 시기였을 겁니다.

2005년 그해 여름, 만삭인 제 아내는 숨이 막힐 듯 열기를 내뿜는 아스팔트 위를 걸어 병원을 다녔습니다. 첫째를 고생 끝에 제왕절개로 얻었기에 둘째는 미리 수술 날짜를 정하였고 이것저것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름 정점을 막 찍은 8월 18일, 너무나도 소중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첫째 아들에 이어서 얻는 딸이기에 마냥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아기가 수유할 때 힘이 부족한 듯 얼굴이 빨개지며 몸시도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의사는 청진기로 진찰한 후 소아과의를사를 호출하였고 아이의 심장소리에 이상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대학병원을 가라고 하였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대학병원에서 검진받은 아이는 바로 입원하였고 심실에 큰 구멍이 있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kg밖에 안되는 아기가 과연 수술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가슴을 열어야 하는 수술에 말도 표현도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 할까'하는 생각에 우리 부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수술을 받았고, 제 아내는 20개월 된 첫째를 데리고 병원에서 딸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전 돈 번다는 핑계로 큰 도움이 못 되었고 24시간 대부분을 홀로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파서 칭얼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밤새 복도를 걸어 다녔고 검사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서 1년 이내에는 감기도 걸리면 안 된다는 주의를 듣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열이 올라가면 긴급으로 입원을 해가며 크고 작은 고비를 넘겼고 일곱 살이 되던 해에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딸아이가 지금은 너무도 이쁘고 씩씩하게 자라서 여고생이 되었고 반에서는 반장으로 댄스동아리에서는 댄스부장으로 그늘 하나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18이 되면 우리 가족은 케익에 촛불을 켜고 아들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두 번이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앞으로 두 번을 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빠의 부재는 너무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예고를 가고 싶어 하던 딸아이는 진로도 변경하였고 살림만 하던 아내는 지금 공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괴롭고 특히 아픔을 안고 태어나 굳굳하게 자란 딸과의 이별은 절 더 힘들게 합니다. 만약 가족이 없었다면 저의 이곳 생활은 정말 엉망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딸이 태어났을 당시 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에게 왜 미리 알아내지 못 하였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심장이상을 알았다면 지금 이 소중한 딸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불에 누운 채 딸아이를 생각하기에, 이제 태업을 감고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딸아이가 학교와 집에서 열심히 살 듯이 저도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부부 편지에 그해 여름 이야기를 하며 차라리 몰랐던 것에 감사하였고 '아빠 빨리 와, 사랑해'라고 쓴 딸아이 편지를 오늘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품평

2.8kg로 태어난 아기를 심장 이상으로 수술실로 보내야 하다니?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네요. 여고생 딸이 반장이 되고 댄스동아리의 부장까지 되었으니 하늘이 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딸의 생일 축하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2년 뒤에 바깥세상으로 나가면 그간 못한 아빠 노릇 곱절로 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족만큼 값진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찬란했던 그해 여름



공수정

저에게는 지난 31년 수많은 여름날 중에 유난히 간절하게 간직하고 기억해야할 여름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아주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으나 나에게는 소중한 잊지 말아야할 유난히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시절의 그해 여름 이야기를 시작 합니다.

유년시절 나의 여름속에는 굿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우산이 되어주시던 아버지와 걷다가 지치면 업어서 데려가시던 어머니, 가족들과 함께 행복했던 갯벌 여행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인해 생활고를 아주 혹독하게 겪으신 부모님께서는 단 한번도 저희 남매에게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보증을 잘못서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든 내색 한번 없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가장이라는 무게로 홀로 고단한 시간을 보냈을 아버지, 본인이 힘들다고 말하거나 지쳐하면 오히려 가족이 걱정할까봐 오로지 과묵하게 혼자서 고생하시던 아버지,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껴서 우리 남매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어머니, 두분의 사랑으로 유난히 따뜻했던 그해 여름입니다.

큰맘 먹고 간 가족 갯벌 여행에서 갯벌에 허우적거리는 우리 남매를 보시고서는 짱구처럼 장난꾸러기 표정을 하시곤 도와주러 오셨던 아버지와 그곳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속 아버지는 항상 웃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아쉬움없이 남들만큼은 다 채워주셨고 부모님께서도 힘든 생활을 하시면서도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는 이미 마음은 부유했던 유년 시절의 그해 여름은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뭐든 포기하셨던 두분 덕에 저도 저의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것 같아서 존경스럽습니다.

나의 10대의 그해 여름 - 10대의 나의 여름 속에는 미치도록 사랑했던 친구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한마디 인사도 없이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던 피하고 싶은 진실의 현실에 도망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시기였고 큰 상처와 상실감에 먼저 떠나간 친구를 따라가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고, 먼저 떠나버린 친구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저의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아픈 경험과 쓰라림의 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잊어야 하는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별을 배우는게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친구를 3명이나 잃은 저에게는 매일 밤낮으로 우는 것이 저의 일이었고 그저 웃는게 어색하고 고장난 인형처럼 깊은 슬픔에 빠져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인생을 포기하려고도 생각했으나 하늘나라로 간 친구들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기한다면 먼저 간 친구들도 많이 속상해하고 슬퍼할꺼라 생각해서 극복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의 10대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오고 그리움이 사무치는 영원한 이별을 현명하게 보내주는 방법과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알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긴 장마철에 유난히 더 많이 생각나는 가슴에 묻고 친구들을 기억하는 그 해 여름이었습니다.

나의 20대의 그해 여름 - 나의 20대 그해 여름은 가장 행복한 순간과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 겹쳐서 제 2의 터닝포인트였던 여름이었습니다. 한가정의 안주인이 되고 두아이를 키우면서 최고의 여름을 보내기도 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의 이기심으로 4년동안 괴롭게 살았고 슬픈 내 얼굴을 애써 감추고 가슴에 짓무른 멍들로 떠나갈 용기도 없는 나였지만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괴롭게 살수는 없기에 내가한 행동을 책임지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하는 결정을 해야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 하게 된건지, 잊어보려도 해도 그럴수가 없었고 도저히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무심한 척을 해도 내안에 깊게 박힌 기억은 나를 해집고 다니다 결국은 큰흉터만 남기고 사라졌고 어둠속에서 혼자 걷는 이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저는 또 쓰라린



아픔에 매일매일을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녔습니다. 결단을 해야하는 시기였습니다. 나의 20대 그해 여름은 최고의 행복과 최악의 상황이 공존했던 4차원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나의 30대 그해 여름은 더 이상의 행복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대의 여름날 모든 걸 잃고 손가락질 받는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준 사람. 나의 허물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저를 안아준 사람입니다. 힘들 때 거짓없이 손내밀어 준 사람을 다시 만나 뜻깊은 인연을 마주하게 되어서 이번에는 정말 후회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한 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특수한 곳에서 알게 되었지만 본인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사람과 앞으로 남은 저의 여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등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나의 30대 그해 여름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며 저의 그해 여름은 찬란한 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그해 여름-그해의 여름들 속에는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그리움, 지난날의 과오로 인한 후회와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 그리고 새로운 인연까지 지금 당장은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의 40대 그해 여름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가올 찬란한 그해 여름을 위해 준비해봐요 우리.



작품평

세 가지 사랑 이야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느 해 여름, 가족이 갯벌 여행을 갔던 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 온 가족을 힘겹게 했더니 속죄의 여행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는 10대 때 세 명의 친구를 연이어 잃었을 때의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망 이유가 글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살이나 사고나 병마가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사랑 이야기는 어느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30대 때 만난 그분과의 만남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그대의 욕심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40대의 여름은 행복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잘 견뎌내고 출소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바랍니다.

“테마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주머니



약속이 있어서 약속장소로 갔다. 약속장소에 도착한 나는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서성이고 있다가 잠시 멈춰 서서 바지에 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무료함을 달래주는 바지 주머니.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널 부러진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사람들은 외투를 입고 식당 밖으로 나선다.

서로서로 헤어지는 인사를 나눈 뒤, 약속이나 한 듯 알아서 손을 넣는다.

사람들의 외투 주머니.

주머니는 아무 말이 없다. 거부할 생각도 없다. 모든 것에 순응하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주머니. 주머니는 그 자체일 뿐이다. 무엇이 들어 있어도 주머니, 항상 비어 있는 채로 있어도 주머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주머니는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지갑대신의 주머니, 장갑대신의 주머니, 어설피품을 숨겨주는 주머니. 잡동사니를 넣어 주는 주머니.

주머니는 언제 생긴 것일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필요하니까 생겼을 주머니.

가방이 없던 시절에 무엇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나중에 몰래 꺼내 먹으려고 보관창고였던 주머니. 바지, 윗도리, 외투, 어디에든 주머니 하나는 있다.

나는 주머니이고 싶다!

주머니 공간이 없어도 모양으로 만든 가짜 주머니도 있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가짜 주머니, 지금 쓰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아도, 허술한 모형이라도 예쁜 모양의 주머니, 나는 그런 주머니이고 싶다! 어느 누군가의 시린 손을 잠시나마 녹여줄 수 있는 주머니, 무심코 떨어뜨린 물건을 주어 잠시 넣을 수 있는 주머니, 사랑하는 연인의 잡은 손을 남들이 모르게 숨겨주는 고마운 주머니, 나는 어느 누구의 주머니이고 싶다!

어느 시인은 ‘셔츠주머니’를 ‘마음의 바깥’이라 했다.

‘따뜻하다. 소중하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멋진, 아름다운 표현이다.

주머니는 속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기에 거짓이 없다.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는 주머니.

나는 그런 주머니이고 싶다. 어느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아무 때나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주머니. 그렇게 내 곁에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별 것 아닌 주머니 하나가 삶의 깊이를 새삼 깨닫게 해준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사람들을 마주 대하는 눈을 갖게 해준다. 어제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습관, 행동까지도 조심스레 변화시켜 준 주머니 하나! 겉으로는 존재감도 없는 주머니, 적당한 위치에 그냥 자리한 주머니. 나는 그런 주머니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공기처럼 주머니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주머니이고 싶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만들어진 그런 주머니.



작품평 : 주머니의 의미와 상징성이 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주제가 뚜렷하고 내용이 독창적인 우수작입니다. 주머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잡동사니를 넣어주기도 하고, 타인의 시린 손을 녹여주기도 하는 의미있는 존재입니다. 필자는 주머니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누군가의 주머니가 되어 따뜻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건조 오징어의 회고록



정택수

나는 속초 태생으로, 본디 드넓은 바다가 내 집이다.

멀리서 보면, 드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나를 보고 혹자는, 매끈한 듯 유연해 보이는 나를 그저 온순한 생물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를 가까이서 보았다면, 내 다리에 나 있는 돌기 빨판들이 여러 바닷속 생물들을 울가미처럼 묶어 내는 무기로 쓰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때 그 돌기들은 악착같이 살아가기 위한 집념의 빨판이자, 나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부모의 도움 아래 자라는 아이처럼, 부모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희생시키며 내 몸집을 불려 나간 것이다.

이뿐이라?

그 빨판으로 용서치 못할 누군가를 집착하듯 붙잡고, 자기 잘못이 있더라도 끝까지 본인의 타당함만을 주장하는 아집의 빨판이었다. 생물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살아온 나에게, 빨판은 기생의 흡반이자 속세에서 행한 나의 미련과 집착으로 얼룩진 곰보 모양의 삶의 흔적이었다.

여러 물고기는 나의 몸체처럼 유연한 사고방식에 호감을 보였고, 선택받은 누군가는 내 먹이가 되어,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듯 한때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나를 성장 시켰다. 그러나 결국 내가 성장한 만큼 나는 나 스스로를 어부들의 표적이 되기 쉽게 노출시키고 말았다.

나는 그해 여름, 속초 바닷가의 이름 모를 고깃배의 어망에 건져졌다. 당시 나는 그 바다 그물을 원망하기보단, 몸집을 불린 탓에 잡혀 들어온 나 자신의 미련함을 더더욱 원망했다. 좁디좁은 가공 공장의 건조실에서, 여러 다른 오징어들과 오도 가도 못한 채로 햇볕에 몸이 점차 말라갔다. 살이 빠지고 여위어갔다. 그리고 처절하게 살아가기 위한 빨판의 힘들이 열려져 갔다. 속세에서 좁은 아량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부덕의 소치다…. 대롱대롱 건조대에 함께 걸려있는 황금빛의 오징어 선배는, 반건조 된 내 몸체보다 더욱 단단한 자태를 뽐내며, 오징어 특유의 꼬순내를 풍겼다.

‘아, 이것이 나의 미래 모습인가…!’ 깊은 한숨만 나왔다.

서너 달이 지나니, 점차 나에게도 구릿빛 그을음 같은 빛깔이 드러나고, 꼬순내가 나기 시작했다. ‘곧, 나도 이 공장에서 나가게 되겠구나.’ 내 몸이 작렬하는 태양 빛에 건조되면서도, 기왕이면 내 몸체가 여느 힘들어하는 직장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안줏거리로라도 쓰임이 있기를 바랐다. 누군가는 내가 성장하면서 그간 수많은 물고기의 고혈을 빨아들인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서 대가를 치른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간 도움받은 것들을 소소하게나마 인연 닿는 사람에게 대신 보은한다는 의미로, 건조되는 죽음을 숭고하게 맞이하기로 하였다.

이 순간 건조대에 걸린 수많은 오징어 중에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관용의 정신을 베풀려 마음을 고쳐먹은 오징어가 있는가 하면, 아직 잡혀 들어온 것을 그저 운이 없다고만 여기고, 자신의 평소 행실에 대해 돌아보지 않는 오징어들이 있다.

지금 아직 바다에 있는 오징어라면, 건조된 오징어들을 반면교사 삼아, 마음을 관대히 먹고 집착하는 마음을 일찍이 버려야 한다. 속세에서 집요하게 무언가를 소유하려 들거나 관용 없이 용졸한 마음을 먹는다면, 언젠간 건조되어가는 오징어처럼 모든 것을 잃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작품평 : 용서하지 못한 채, 집착을 붙잡고 생물의 체액을 빨아먹는 오징어의 빨판처럼 살아온 인생, 그 아집의 빨판을 비유를 통해 잘 묘사했습니다. 건조된 오징어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용을 베풀면서 그동안 도움받은 분들에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박근억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자” 수많은 시간 동안 수용 생활을 하면서 별반 다를 것 없는 반복되는 일상에 그저 나갈 날만 기다렸지 반복되는 일상에 “그래도 의미 있게 보내보자”라고 다짐하고 수용 생활에 임하다 보니 저녁 취침 시간 라디오에서 나오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자”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깨우침이지만 일상에 “단 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수용 생활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이다”라고 말한 간디의 말이 가슴에 새겨지면서 반성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쳤는지 진실된 성찰로 되돌아보며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벌써 노트로 열권이 넘어갔다.

내 일상의 변화는 내가 느끼지 못하였지만 지난 수용 생활을 일기로 확인해가면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다. 그럼으로써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 번 더 신중한 자세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나의 반응은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태껏 내가 선택했으니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며, 마땅히 책임지는 자세로 이것도 새로운 삶을 향한 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다.

삶을 살아가면서 모진 풍파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을 지혜롭게 부딪치고



헤쳐나가려 하지 않고, 그저 쉬운 길만 선택하며 위선적인 자세로 세상을 대하려 했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배우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계기를 가져 본다. 강인한 정신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올바른 자아로 인한 가치관을 형성해 세상을 맞이하였다면 과연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눈물의 의미는 굵은 땀 한 방울의 진정성 있는 삶을 영위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나는 43년이라는 삶을 살면서 나약한 마음자세로 마약을 접하고 함께 웃는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인 것 마냥 달콤한 유혹의 늪에서 합리화시키며 살아왔음을 이제야 깨우치게 되었다.

나만 아프고 고통을 참으면 되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눈물을 흘리며 자기 성찰을 통해 늦었지만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목표를 세워 남은 삶을 구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제일 먼저 부모님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며 신뢰를 잃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지인들의 손가락질에 무뎠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왜 이제야 후회의 물결이 나를 적시는 것일까?

무의미하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무엇으로 되돌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내 자신을 발전시킨다.” 일기장에 적어두고 있는 글이다.

그동안 자신을 비판하고 스스로 사람을 포기한답시고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세상을 등지려고 7차례가 넘도록 포기하려 했다. 그 용기로 맞닥뜨린 현실을 이겨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로 삶을 살았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소중한 기회의 일환이 되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이 온다. 그 위기의 무게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 도피를 먼저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부정을 긍정의 마인드로 바꾸기도 한다. 긍정의 마인드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에 따라 발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게 한다.

“왜 나에게만?”이라는 생각보다 “다음은 내가 뭘 해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다면

부정적으로 닦친 현실을 오히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남들보다 앞선 자리에 서 있었을 것이다.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살면서 그런 말들은 다 의미 없고 그저 불신으로 가득 차 세상과 타협하며 편한 길만 찾아 헤맨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번 말로만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 다짐하고 각오하는 것보다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관점은 더 넓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 남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포기하는 일에도 부딪히며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다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면서 힘든 시기가 찾아오거나 다시 달콤한 유혹의 늪에 빠지려 할 때 경각심을 갖고 이곳에서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사람에 적응하며 재기에 성공할 것이다.

성공이라 해봤자 대단한 게 아니다. 가족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며 굶은 땀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아가면서 진짜 행복의 의미를 만끽하면 그것이야 우리에게 “성공”이 되는 것이고 어느 환경에서도 지나온 사람에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을 찾아가면 우리도 결국에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주관과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직면하는 건 똑같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직면한 세상에 “재조정”과 “재해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곳에서 떨어뜨린 열쇠를 밝다는 이유로 찾을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된다.

삶이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의 연속이다. 그렇기에 인생의 방향에 부합해 나아가는 길은 힘차고, 고통도 장애가 되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도 내 할 일을 해내야겠다는 깨끗한 의지로 용기를 얻으리라 믿는다.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 다짐과 각오를 행동으로 옮겨 두 번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길 기원하면서 글을 마친다.



작품평 : ‘긍정적인 생각이 내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일기장에 적어둔 말이 훌륭합니다. 성공이란 신뢰를 회복하고 땀방울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이 독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긍정적 마인드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상을 꿈꾸며



젊은 날, 2년 6개월이라는 깨닫기엔 충분한 시간을 옥중에서 보냈습니다.

늘 저 자신이 성실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고 무지몽매한 것인지 당시 옥중 고난을 망각하고 다시 5년 형을 받고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는 자는 상등이요, 배워서 아는 자는 중등이며, 겪어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등이라 하였는데 저는 아직 더 학습이 필요한 하등인가 봅니다. 앞으로 많은 날 후회는 계속되겠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겠으나 사람의 적응력으로 결국 심신을 가다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지요. 영어의 몸이 되어 담장 밖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떠올리며 대장부로서 저를 믿었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지금 '죄를 지었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라는 성경 말씀을 되새기며 지금도 신체 건강하고 배꼽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좀 더 성실히 더 근면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서 진실로 바른길을 걷지 못했기에 지금의 고난이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아깝고 이미 놓쳐버린 시간으로 인해 제 삶이 재기 불능의 수준까지 추락하지는 않을까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늘 저 스스로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고 가족들의 희망이라 생각했는데 죄 앞에선 힘없이 무너져 버림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삶, 쉬운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잃어도 되는지 알지 못했던 그때였습니다. 단 한 번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 하루만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와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요.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의 뼈를 깎는 후회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저는 내일을 위한 다짐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기,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고 탓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보다는 아직 할 수 있는 일과 해보지 않은 일에 더 집중하기로 그래서 다시 한번 힘찬 날갯짓으로 세상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저를 만들고자 합니다.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저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작품평 :〈논어〉에 나오는 '생이지지자(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와 학이지지자(배워서 아는 사람)를 생각하게 하는 희망적인 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힘찬 날갯짓으로 도전하고, 열심히 배우면서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밥공기



권준형

새벽 4시 50분...

“띠리리”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복도로 나와 차갑게 열어있는 운동화를 신었다. 취사장으로 출역하기 위해서이다. 500명의 아침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두컴컴한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경상북도 ○○군의 겨울! 그 차가운 바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섭기만 하다.

“오늘도 안전에 유의해서 일합시다!”

“네.”

담당 근무자의 업무지시를 듣고 나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창고에서 아침식사에 사용할 재료들을 꺼내어 왔다. 스팀(뜨거운 열기)이 나오는 소리를 시작으로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 배식준비를 마쳤다.

취사장에 출역한지 이제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춥고 힘들고 짜증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참고, 몸의 피곤함을 견디며 생활하던 중 그리운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목이 메여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3분이라는 시간은 금세 흘러가 버렸다.

“밥은 잘 먹고 있느냐? 잠은 잘 자느냐? 어디 아픈데는 없느냐? 추운데 이불 꼭 덮고 자거라...”

전화통화는 끊어졌지만 어머니의 근심 가득한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취사장으로 돌아와 다시 식사 준비를 하면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그 오랜 세월동안 집안일을 하셨을까?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나의 양말부터 속옷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셨음에도 난 단 한 번도 감사하다거나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감사하고도 고마운 일 뒤에는 어머니의 쓸새없는 수고로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서, 취사장에 출역하고 나서,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당연하다는 착각에 나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 반찬을 잘 먹을까? 아니면 국물이 짜지는 않을까? 신경쓰시고 고민하셨던 어머니의 소중한 음식 앞에서 맛이 없다고 투정부리고 먹기 싫다고, 귀찮다고 안 먹었던 지난날... 입어야 할 옷을 세탁해 두지 않았다고 투덜거렸던 날들... 불효하고 죄송했던 일들만 계속 떠올라서 마음이 몹시도 아팠다.

오늘은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편지를 써야겠다.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그립다고..., 그리고 너무 사랑한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따뜻한 밥 한공기가 너무나 그립다. 어머니께서 해 주시는 밥과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은 오늘이다.



작품평 : 어머니는 우리의 고향이요, 안식처이며 평안의 공간이다.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솟아나는 존재.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어머니를 소재로 택하여 근원적인 사랑을 잔잔하게 보여주는 우수작이다. 어머니가 해 주시는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는 영원한 그리움의 존재이다.

어느 여름 나팔꽃의 굳은 의지



민경근

창 밖 언덕배기 척박한 모래땅에 연한 싹 한 포기가 돌아나서 자라기 시작했다.

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싹이 저 메마른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밖을 보았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굳은 의지로 끈질기게 자라며 연두 색깔의 서너 잎을 피우더니 초록으로 변화였고 이파리가 커졌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연하디 연한 나팔꽃이었다.

그런데 그 나팔꽃이 줄기도 나오기 전에 가뭄으로 습기가 있던 곳까지 말라 그 곳에 있던 잡초마저 시들시들한 처지가 되었고 그 불모지에 돌아난 나팔꽃의 시련은 시작되었다. 그 후 자고 나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파리가 시들시들하더니 노랗게 변하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꽃 한 송이지만 악조건 속에 태어나서 가뭄까지 만나 자신의 생명을 다 피워보기도 전에 말라 죽어 버린 비참한 운명에 너무 애처로워 가슴이 찢히었고, 꽃 한 송이에서 삶의 무성함을 느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환경이 삶의 전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때 내 생각 같아서는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파리를 보면서 건물 사동을 돌아서 갈 수만 있다면 물을 주어 살려주고 싶었다. 그만큼 매우 안쓰럽고 가여워 보였지만 나의 여건상 행동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장마가 시작되었고 며칠을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무심코 창밖을 내려다보던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경의의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죽은 줄만 알았던

연하디 연했던 그 나팔꽃이 초록색을 댄 서너 이파리로 돌아나 아름답게 퍼지는 햇살에 반짝이며 생을 구가하며 서있지 않는가? 나는 남들이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끈질긴 생명력의 신비와 죽음 직전에서 견딘 인고의 인내력에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밖을 보게 되었다. 잎 사이로 거미줄 같은 줄기가 나오더니 옆에 말라죽은 망초대궁을 움켜쥐고는 가는 허리를 아슬아슬하게 외줄을 타며 곡예 하듯 위만 보고 별빛 쏟아지는 밤에도, 달빛 부서지는 밤에도, 먹구름 천둥치는 밤에도 쉬지 않고 구두 뒤꿈치만큼씩 자라더니 결국 오늘 아침엔 드디어 축축한 새벽이슬을 머금고 청초하고 예쁜 꽃을 피웠다. 나는 그 꽃을 보는 순간 주위의 시선도 잊고 만세삼창을 외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런 모습의 나팔꽃을 보며 내 삶을 되돌아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난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과 보살핌으로 남 부럽지 않게 자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하여 남보란 듯이 잘 살았었다. 그래서인지 텅 익은 과일이 탈이 나듯 겸손을 잊은 오만함과 아물지 못한 인생관으로 삶의 큰 그림의 틀을 잡지 못한 채 현실의 즐거움만 찾으며 청춘을 소진하였고 소중한 날들을 낭비하였다. 물질 만능주의와 독선적이고 아집스러운 마음으로 남들보다는 나를, 부모형제보다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충족의 삶을 살았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 피할 수 있었던 사소한 말다툼이 그깟 자존심이 무엇이라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죽어 마땅한 큰 죄가 되고 말았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현실이라고 조차 생각할 수 없었고 꿈만 같았다. 그저 숨 쉬는 것이 한스럽고 살겠다고 밥 한술,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이 부끄러웠으며, 죄를 지은 내 손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한 번씩 바라보던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조차 너무나 죄스러웠다. 그 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들리지 않았다. 이곳은 진정 어디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고 끝없는 마음의 갈등 속에서 중심을 잃고 헤맸다. 정신을 차렸을 땐 10년이라는 형을 선고 받았고 나는 죽었다 생각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 장구한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후 출소했을 때 과연 변화가 빠른 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사회가 날 용납해 줄지,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 하는 의문과 고민을 하며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지으며 보낼지 그저 몸부림만 쳤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이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내 죄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착하게 행동하고 적당히 하느님을 찾으며 삶의 의지는 눈곱만큼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나에게 나팔꽃은 의지를 북



돈아 준 것이다. 내 생각에 그 나팔꽃은 야망의 꽃이었던 것 같다. 죽음 직전에 회생하여 마치 그 역경을 사력으로 버틴 세월을 복수라도 하려는 듯 악착같이 줄기차게 기어오르더니 결국 생의 목적을 이루는 나팔꽃을 보며 나는 무언의 교훈과 감동을 받았다. 야망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나에겐 야망으로 보였다. 내 삶의 야망~~!! 내 인생의 삶의 의지였다. 저렇게 억척스럽게 사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 하리라.

얼음 밑에서 굳세게 자라는 미나리와 같이 내 눈앞에 있는 나팔꽃과 같이 야망을 갖고 억척같이 살아야 하는데 나는 이제까지 자그마한 난관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렸다. 목표를 설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끈기로 인내하고 근면하게 생활한다면 행복은 다가올 것이니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 꽃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교도소 안에 갇혀서 발돋움하여 목을 늘이고 자유로운 바깥세상을 넘겨다보면 사회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생존경쟁에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전쟁하는 병사처럼 행동하는 살벌한 곳이지만 그래도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으니 그리움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는가? 패배의 양금과 온갖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터지고 멍든 상처만 어루만지며 체념할 것이 아니라 나팔꽃처럼 악착같이 살다보면 시리도록 슬픈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용기 내본다.

나팔꽃이 가뭄에 죽음까지 갔다가 비를 만나서 회생하고 바람과 햇살을 받아 예쁜 꽃을 피워 보람된 삶을 마치듯 나도 희망을 갖고 투지와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근면과 인내로써 산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나팔꽃이 준 삶의 투지와 의지를 가슴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오늘의 고통과 내일의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팔꽃보다 아름다운 내 삶의 꽃을 꼭 피우리라 다짐한다.



작품평 :야망을 갖고 억척같이 살아가는 나팔꽃의 모습을 인간의 삶과 동일시하여 나팔꽃이 보여주는 삶의 의지를 주제로 제시합니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꽃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한 우수작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기쁨으로 승화시켜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문복희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지출처 : unsplash

사람의 역사 속에 새겨진 말 이야기

김상철 | 동덕여대 교수

말은 개, 소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가축이지요. 말은 본래 여우 정도의 크기로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점차 진화를 거듭하여 약 1,200만 년 전에 지금의 말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지요. 이 말의 조상들이 베링해협을 따라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빙하기엔 아메리카와 유럽의 말들은 모두 얼어 죽고 중앙아시아 일대의 종자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말들의 조상이 바로 이들이며, 중앙아시아가 바로 말들의 고향인 셈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한 때는 대체로 청동기시대인 B.C. 4,000~3,000년 전 무렵으로



제주 조랑말은 덩치가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과 지구력을 자랑한다. 고려 말 몽고 말이 들어와 토착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후 말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개량 노력으로 특색있는 다양한 품종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을 오래 전부터 키워왔으나 그 원종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재래마는 체형 상으로 몽고 야생 말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헌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말을 사육했던 기사는 <사기(史記)>라는 책에 위만조선 시대에 한 무제에게 말 5,000두를 헌상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부여, 고구려, 동에 등에서 삼척마(三尺馬), 즉 과하마(果下馬)를 생산하여 남쪽 백제 지역에도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말하면 제주가 떠오릅니다.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제주 말은 유명하지요. 제주 말은

흔히 조랑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몽골족인 원나라가 1273년에 제주도를 침공한 뒤 약 100여 년간은 수십만 마리의 몽고 야생말들이 제주도에 유입되었고 이후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입된 북방계 우량 마에 의하여 잡종화된 중형 마로서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된 말이 바로 제주 말이라 합니다.

가축화된 말들은 인간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쟁 때는 군수품을 나르고 병사들을 이동시켰으며, 이후 경마라는 스포츠가 생겨나면서 경주마로도 일하게 됩니다. 흔히 무한한 수고와 노력을 표현할 때 ‘견마지로(犬馬之勞)’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즉 개나 말처럼 일했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말은 인간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셈입니다. 말들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개량을 반복하며 목적에 맞는 품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요즘 말은 이동이나 운송 수단보다는 경마, 승마 등 스포츠, 레저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마는 거액의 상금이 걸려 있어 우승마의 가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켄터키 더비에서 우승한 ‘아메리칸 파로아(American Pharoah)’라는 말입니다. 켄터키 더비는 매년 5월 첫 번째 토요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리는데 세계 각국에서 이를 보러 오는 관중이 25만여 명에 달하며, 3살 전후의 말 20마리가 2km의 주루를 2분여 만에 달려 순식간에 승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우승한 말 소유주는 우승상금으로 186만 달러(우리 돈 22억 원)를 받게 됩니다. 이 경마대회를 비롯해 미국의 메이저 경마에서 3관왕을 차지한 말이 바로 ‘아메리칸 파로아’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상금을 벌어들였지만 정작 더 큰 돈을 번 것은 바로 교배를 통한 수익이었습니다. 당시 이 세계 최고의 명마의 씨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교배 비용은 20만 달러에서 시작했음에도 수요가 폭증하여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이후에는 그 가격이 비밀에 부쳐졌다고 합니다. 이런 종마는 하루 4번 정도 교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20만 달러면 하루에 80만 달러(약 10억 원)를 벌 수 있는 셈이지요. 최고 수준의 명마는 한 시즌에 암말 200여 마리와 교배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런 말의 소유주는 몇 달 만에 수천만 달러를 간단히 버는 것이지요.

물론 당연히 값으로만 말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요.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했던 말이기에 역사적으로 이름을 떨친 말들이 적잖습니다. 이들은 말이라는 가축인 동시에 인류의 역사를 견인하는



페가수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말로 날개를 가진 말의 형상이다. 영웅 페르세우스가 보기만 하면 돌로 변하는 머리 아홉 개가 달린 메두사를 죽이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나타나 말로 환생시켰다.

키워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유명한 말들을 통해 사람의 역사를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페가수스’일 것입니다. 페가수스의 어머니는 유명한 괴물인 메두사이며 아버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가수스는 날개 달린 백마이며, 하늘을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인들이 신마(神馬)로 숭배했을 정도로 대단했지요. 페가수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잘랐을 때 그 목에서 떨어진 피에서 태어났다고 하지요. 페가수스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제우스신의 번개를 옮기는 역할을 맡아서 하늘을 달리게 되었는데, 이후 태양의 신 아폴론의 말이 되었지요.

서양에 페가수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전설의 명마인 '천리마'가 있습니다.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정도로 빨랐던 말로 아마 한혈마(汗血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한혈마라는 이름은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달리는 말'이라는 한나라 때 서역 원정을 갔던 장건이라는 사람에 의해 중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역대 영웅과 호걸들은 모두 천리마 타는 것을 꿈꾸었겠지요. 이런 명마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최고급 스포츠카와 같은 것이었을 테니까요. 특히 목숨을 건 전투에서 속도는 바로 목숨과도 직결되는 것이기에 영웅담에는 늘 전설적인 명마인 천리마가 등장하곤 합니다.

천리마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백락(혹은 백악)이라는 사람의 고사입니다. 백락은 본래 손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말 보는 재주가 너무 뛰어나 백락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백락(伯樂)이란 본래 하늘의 별자리 이름으로 천마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직책 이름입니다. 그는 아무리 물골이 불품없거나 비실거리는 말이라도 그 말이 천리마임을 알아내는 혜안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백락이 있는 다음에 천리마가 있는 것이니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지 않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인재의 등장과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안목 있는 이의 관계를 말한 것인데요, 하루에 천 리를 달린다는

명마는 어느 시대에도 있지만, 그 명마를 알아보는 백락 같은 사람은 좀처럼 없다는 뜻입니다.

백락의 안목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고사가 있습니다. 한 늙은 말이 소금 수레를 끌고 높은 산을 오르는데, 아무리 안간힘을 써 봐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떤 이가 이 모습을 보고는 다가가서 그 말을 어루만지며 통곡하고 옷을 벗어 걸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말이 머리를 치켜들고 하늘을 찌를 듯이 슬프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본디 천리마인데,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평생 소금 수레만 끌며 늙어간 것이었지요. 형편없는 물골을 한 이 말이 천리마인 줄을 알아보고 통곡한 사람은 말을 잘 감별하고 조련하기로 유명했던 백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재는 어느 시대에도 있지만, 인재를 알아볼 백락이 없는 것이 불행이라며 인재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거론되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자(莊子)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비춥니다.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들뜬 마음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이 말의 본성인데, 백락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좋은 말을 가려내어 명마로 키운다면서 편자를 박고 굴레를 씌워 먹이와 채찍으로 길들이는 바람에 그 본성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인위적으로 맞추려 함으로써 불행이 야기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들 천리마에만 눈이 있을 때 장자가 본 것은 재능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천리마로 길러지다가 죽고 버려지는 대부분의 말들이었던 것이지요. 꼼꼼이 곰씹어 볼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케팔로스를 길들이는 알렉산더 대왕. 영웅과 명마의 만남이다.

이와 더불어 이야기할 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과 '부케팔로스'라는 말의 이야기입니다. 부케팔노스는 누군가 등에 오르지만 하면 사람을 떨어뜨리고 발길질을 해가며 난동을 부리는 매우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작 12살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부케팔로스에 올라타 다소곳하게 만들었다고 하니 전형적인 영웅전의 무용담이 말과 함께 시작된 것이지요. 마치 백락과 천리마의 관계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말의 천성을 알아보았고, 말은 자신을 알아봐 준 왕에게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 준 것이지요. 이후 그 둘은 늘 함께했으며 그리스, 이집트, 인도 북서부에 이르는 원정길을 함께 하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애마가 죽자 그를 추모하며 지금의 파키스탄 북동부에 알렉산드리아 부케팔로스라는 이름의 도시를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로 유명한 나폴레옹이 탔던 명마의 이름은 마렝고이다. 험준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과 더불어 마렝고의 아우라가 두드러진다.

건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계의 전쟁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나폴레옹에게도 그의 옆을 지키던 말이 있었습니다. 전 유럽 등지를 제패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나폴레옹이 탔던 명마는 이집트산 아랍말로 이름이 '마렝고'였습니다. 마렝고가 나폴레옹의 애마가 된 것은 아랍말 특유의 빠어난 자태와 142cm 정도의 작은 키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신이었던 나폴레옹에게 딱 맞는 크기였고, 나폴레옹과 같이 작지만 용맹하고 튼튼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후에 마렝고는 영국으로 건너가 씨수말로 사용되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화가 다비드가 제작한 초상화 '생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나폴레옹'에

등장하는 강한 아우라를 뽐내는 말이 바로 마령고입니다.

영웅들의 각축을 그린 <삼국지>의 영웅 관우의 적토마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명마입니다. 삼국지에서는 적토마에 대해 하루에 천 리를 달리고 잡털이 없이 온몸이 붉은 전설적인 명마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적토마는 본래 동탁의 말이었지만 동탁이 여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조에 의해 여포가 죽은 후 조조가 관리하다가 관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적토마를 선사했지요. 적토마는 그동안 많은 주인을 만났고 또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관우를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는지 관우가 죽은 후 단식을 하며 결국 주인인 관우를 따라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영웅과 명마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역발산 기개세’의 상남자 항우의 명마인 오추마. 주인과 더불어 생을 마감하여 영웅에 걸맞는 기개를 드러내었다.



중국 명마를 얘기할 때 관우의 적토마와 항우의 오추마가 빠지지 않습니다. 항우의 애마인 오추마는 원래 추(騅)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사람이 아닌 말이지만 자신만의 탄생설화가 있는 신령한 말이었지요. 전설에 따르면 추는 원래 하늘의 검은 용이었는데 검은 말로 변해 물가로 내려와서는 날마다 난동으로 부렸다고 합니다. 이에 항우는 그곳을 찾아 검은 말을 단숨에 등에 올라타 굴복시켰다고 하지요. 그렇게 항우와 추의 첫 만남이 시작됐고 죽을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천 리를 달리는 추는 항우와 함께 많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천하를 두고 유방과 다투던 항우는 마지막 결전인 오강(烏江)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이에 자신이 아끼던 말까지 죽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추를 전장에서 내보내기로 한다. 항우는 추를 배에 태워 강 건너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배에 오른 추는 항우가 사력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달려가기 위해 강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추는 다시는 거센 강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추는 검은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추의 이름에 까마귀 오(烏)자를 더하여 오추(烏騅)라 불렀고 이제는 이 이름이 더 잘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까마귀의 윤기 나는 검은 깃털처럼 추가 새까맣다는 것을 강조한 이름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전설적인 명마가 전해집니다. 그중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고려 말 왜구를 소탕하고 북방 여진족들을 물리친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유명했습니다. 늘 전장에 나갔던 이성계였던 만큼

그에게는 8마리의 명마가 있었습니다. 이들 말을 팔준마(八駿馬)라 불렀는데, 조선 역사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들로 '용비어천가'에도 이 팔준마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종은 몽유도원도를 그렸던 안견에게 팔준도를 그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쿠데타로 새 왕조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에게는 백성들이 자신을 타고난 왕이라 믿도록 도와줄 '하늘의 뜻'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나라 목왕이 여덟 마리의 준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곤륜산으로 들어가 불멸의 삶을 살았다는

전설에 착안해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말 8마리에 황운골(橫雲골), 유린청(游麟靑), 추풍오(追風烏), 발전자(發電자), 용등자(龍騰紫), 응상백(凝霜白), 사자황(獅子黃), 현표(玄豹)라는 비범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중 함흥산, 해주에서 싸우고, 운봉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승리할 때 땀던 유린청이라는 말은 화살을 세 발이나 맞고도 이성계를 살려내어 그가 특히 아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100대 영웅에 선정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레클리스'라는 말로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를 수송하는 임무를 훌륭하게



태조 이성계의 애마 유린청. 여진 정벌과 왜구 소탕을 하며 이성계와 전장의 생사를 함께 하였던 명마이다.

수행해 하사 계급도 받은 말입니다. 원래 경주마였던 레클리스는 1952년 미국 해병대에 입대 후 총알과 포탄이 쉴 새 없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무거운 탄약 더미를 부지런히 날라 임무를 완수해 고랑포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과 UN 군을 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곳이든지 한두 번만 함께 가면 그 뒤는 알아서 갈 정도였고 적의 사격이 시작되면 사격이 끝날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등 매우 영리했다고 합니다. 1953년 연천군 장남면 지역에서 활약하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1960년 죽게되자 미국 해병대에서 엄숙한 군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비록 역사 속의 사실은 아니지만, 문학작품 속에 존재감을 뽐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나오는 ‘로시난테’가 그 주인공이지요. 시골에 살던 가난한 귀족이었던 돈키호테가 기사 소설 이야기에 심취해 자신이 중세의 기사가 됐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그의 말인 로시난테와 시종인 산초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지요. 로시난테는 형편없는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돈키호테와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로시난테는 묵묵히 주인인 돈키호테를 따랐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파냐 광장에 가면 돈키호테와 로시난테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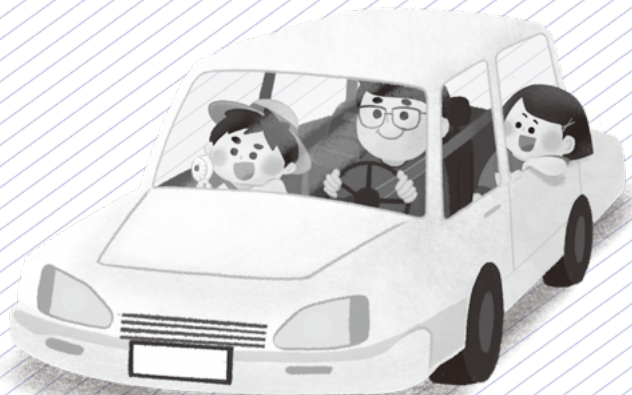
이밖에도 전남 강진에는 말 무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황대중(黃大中, 1551~1597)장군이 타던 말의 무덤입니다. 황장군은 피난 가는 선조의 여가를 호위하고 또 거제도에 내려가 큰 공을 세운 뒤 남원성에서 왜적들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전투 때마다 항상 함께하고

애마가 전사한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한 장군이 주인의 시신을 말 등에 엮었더니 이 말은 주인을 태우고 300리 길을 밤낮으로 달려 주인의 고향인 전남 강진까지 달려온 뒤 고개를 떨구며 식음을 전폐하다가 3일 뒤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황장군의 후손들은 이 같은 말의 충복에 감복하여 황 장군 무덤과 가까운 곳에 묘를 만들어 황건당 애마지총이라는 비석을 세운 것이지요. 건당은 황장군의 호입니다.

말과는 상관없지만, 발음 때문에 종종 오해를 사는 것이 바로 ‘말 무덤’입니다. 말 그대로 본다면 말의 무덤이겠지만, 여기에서 말은 말(馬)이 아니라 말(言)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 무덤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데 약 오 백여 년 전 이곳 마을에는 여러 성씨가 함께 모여 살았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문중 간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개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쫓는 모습과 닮아 말싸움이 잦은 것이니 개가 쫓지 못하도록 하고 말 무덤을 만들어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사발 하나씩을 가져와 싸움의 발단이 된 말썽 많은 말들을 모두 사발에 넣어 담아 개 주둥이에 해당하는 산언저리에 구멍이를 파고 묻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마을에서는 말로 인한 싸움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말로 비롯된 온갖 불화와 갈등들을 말 무덤으로 단숨에 해결해 낸 조상들의 지혜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태민

안녕하세요. 저는 4년형을 선고받고 성실히 수감생활 중인 이태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번 챙겨보는 '새길지'에 글을 쓴다고 생각하니 설레고 한편으론 떨리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제 마음 속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전 훌륭한 성품을 지닌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는 화목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인간관계도 원만했으며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지만 지금 이 문제를 초래한 것은 저의 욕심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에 하고 싶은 게 많았고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하고 싶은 것 또한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계속해서 부딪혔고 나쁜 맘까지 먹게되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피해자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저입니다.

우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들께 이 자릴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스럽고 한스럽습니다. 입이 열게라도 할말이 없고 제가 지은 죄가 이미 었질러진 물이라 안타깝게도 돌이킬 순 없고 중요한 건 '앞으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중 교도소에 대한 내 머릿속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벌을 받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도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닌 재소자를 교화시켜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이었습니다. 전 그 목표와 뜻을 이해했고, 이해한 순간부터 수감생활이 180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화된 내 모습이 기대됐고 앞으로의 내 미래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데 궁극적인 마음이 생기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이러한 잘못은 절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며 주어진 벌을 달게 받고 나가서 앞으로 새출발 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책을 읽고 지,덕,체를 갖추어 가족들에게도 완전히 달라진 저의 모습도 보여드릴겁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벌이 나 혼자만의 벌이 아니라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 전체의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 이렇게 벌을 받게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죄스럽고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오릅니다. 이 의지를 사회의 악인 '불법'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쓸모있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쉽게 벌어 쉽게 쓰는 이전의 호화로운 생활은 꿈이었고 이젠 그 꿈에서 깨어 행복이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말로는 쉽고 단순하지만 현실로는 이루기 되게 힘든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난 행복해지기 위해 아침 기상에서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내 자신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잘못된 돈'이라는 늪에 빠져 내 자신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돈이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힘든 게 돈인 것 같습니다. 없으면 하고 싶은걸 못하니 힘들고, 있어도 더 많은걸 원하기 때문에 힘들고, 날 마치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똥보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정말 절제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연은 역풍에서 더 높이 난다고 합니다. 전 지금 이 역풍에서 높게 날 때입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며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나의 나날들이 자신있고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법에 위배되는 것들은 절대 없을 것이며 남은 기간동안 더 반성 발전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자랑스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태민 화이팅!

작품평 : 어떤 죄를 지어 4년 형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펼쳐서 이 글을 씀게 되었습니다. 4년의 형기를 벌을 받는 기간이 아니라 교화의 기간이라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요, 새 출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생각하면 나날이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벌어 쉽게 쓰는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었다니 이것만큼 어리석고 허황된 꿈은 없습니다. 봉어빵 장사의 귀찮길은 가벼울 테지만 사기꾼의 술자리는 불안을 잊기 위한 바늘방석일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홍대식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9월 6일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죄명으로 ○○교도소에 구속수감 중인 재소자 홍대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공모전에 저의 사연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구속되었을 때 ‘새길’이라는 책을 보면서 당시 저의 흔들리고 답답한 마음들을 추스를 수가 있었기에 이번 계기로 ‘새길’ 발간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사연을 고백합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대 후반 총각 시절에 전국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에서 건강식품 판매를 하는 영업부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 처와 그 당시에 “사내커플”이 되어 결혼까지 하였고, 업계에서는 사장님들에게 인기가 좋아 전국 관광지와 엑스포장, 행사장 쪽에서 근무하며 수없이 많은 이사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훌쩍 커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큰아들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둘째 아들과 사랑하는 처와 ○○○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와 함께 건강식품영업을 10년 이상 해오다가 식품업계가 순탄하지 못하여서 건어물 가게도 해보았고, 40대 초반부터는 곱창가게로 전업을 하였습니다. ○○○와 ○○○에서 곱창 가게를 7년 정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구속되기 석달 전, ○○○ 집 근처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 해장국”이라는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개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여름철이라 식당 영업이 그다지 순조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 대학교 2학기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고지가 되었고, 책임주방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종일반 아르바이트는 하지 못하지만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알바○○”이라는 곳에 저의 구직 글을 올려놓았더니 곧바로 해당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고액 알바라는 말에 끌려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어필하여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업체에서 이 일에 대하여 문자로 이야기할 때는 ‘증권업무’라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정된 곳으로 저를 이동시켜 ‘돈심부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지정된 곳으로 도착하면 돈을 건네주시는 분이 오히려 저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시며 부탁들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피해자가 없으니 이 일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나는 큰아들 학자금 2~300만원 정도만 모으면 되니까 그 외에 다른 작은 관심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주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괜찮아, 별일 없을거야...’라고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말하며 저 자신과 타협하고야 말았습니다.

2021년 9월 6일 구속되던 날 아침에, 제 처는 일찍 가게에 나갔고 저는 그날따라 처음으로 싱크대에 밀려있던 설거지도 하고 둘째 아들의 아침 밥상도 맛있게 준비해놓고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출근한 지 10분 정도 지난 아침 7시경, 형사 두명이 가게로 왔고 저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 경찰서로 동행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구속된 지 한달이 지난 후에 처는 식당 문을 닫고 가게를 처분하였고, 이 일의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며 가게 처분금 전액을 피해금액의 합의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 1심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못한 점이 있지만 미필적 고의도 범죄라고 생각하여 고개숙여 자책하였고, 이렇게 항소심에서라도 뒤늦은 후회를 하며 제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반성문도 여러번 쓰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짧은 판단으로 저는 여러명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제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은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늦게까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 처는 이번 일로 적지 않은 쇼크가 발생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출소하여 열심히 일해서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이 남떠러지에 서 있는 저희 가정도 열심히 보살피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작품평 : 주변 상황이 수용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지요. 건강식품 영업이 잘 되었더라면, 곰창가게가 잘 되었더라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는 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두 아이도 아빠가 학비 조달에 애쓰다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가족이 똥똥 뭉쳐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로 인해 고통 받았을 모든 분들께 & 감사의 방법



윤현로

이제야 명확히 알겠습니다. 가능한 상황은 두가지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의견이자 진심 어린 충고를 전하자면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용기를 내면 안정된 발판을 잠시 동안 잃지만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자기 자신을 잃어 나갑니다.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용자·수형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빌어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제 사연을 소개해 볼 차례입니다. 이곳 수용시설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옛 “버마”)에서 주재원 생활과 더불어 개인 사업을 약 7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공가도를 달렸으며,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 당시 초청되어 행사에 참여하였고, 유망한 청년 사업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믿은 결정이 후회로 바뀌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삶의 이야기는 남을 속이는데 사용되었고, 초심을 지키지 못한 나머지 자만과 어리석음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도 사라진 채 욕심과 집착을 더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이뤄내야 했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쉬운 길을 택하였고, 결국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만 남긴 채 피해자분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피해자분들의 무거움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들기 전에 내게 피해 받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반성해봅니다. 그리고 그때를 떠올려 내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절대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반성이 나의 인격의 성장에 삶을 점점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삶은 매우 복잡합니다. 매일이 낙담과 어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삶의 어려운 시기를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다짐합니다. 나의 좋은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장점을 알아 갈 때 비로소 한걸음 더 성장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작은 일에서 잠시 작은 의미를 찾아보고 말해봅니다. 출역으로 나와 있는 “간병” 일을 하며 “특별할 것 없는 오후, 설거지 하는 싱크대에 내려 앉은 햇살”을 만날 때면 그 고유한 질감을 나에게 선사하는 작은 선물로 바라봅니다. 기쁨은 주어진 환경에서 찾는 것이고, 그 감각은 아직 아무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지는 데는 얼마나 작은 것만으로도 충분한지를 배워 나갑니다. 이미 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빚어진 결과를 지금 현재도 반성해 나가고 있으며,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부디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이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피해자분들께 주는 유일한 것은 달랑 글일 뿐이지만, 그 문의 열쇠는 결국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Everthing will be fine (괜찮아, 모든게 다 잘될거야)

Grow up! (성장하라)

작품평 : 미안마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도 병행했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어찌하여 영어의 몸이 되었을까요. 인간은 유혹에 약한 동물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형기를 사는 동안 자기반성을 제대로 하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글에서 읽혀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밝게 사십시오.

청소 리어커에 반성·후회 다짐을 싣고



신영철

지난 2020년 1월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이하 코로나 19) 감염 확산세로 전 세계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까지 3년여 기간 동안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아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신종 돌연변이 오미크론에 의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해 증가 추세를 보이다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경제 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자 소상공인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발 빠르게 힘써 왔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법의 심판을 받아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지난날을 후회하고 수 없는 반성을 통해 갱생의 길을 걷고 있다.

3척 높이 담장 안 영어의 몸이 되어 50대 중반의 삶을 뒤돌아보는 전환점을 맞아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길을 스스로 자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새로운 삶과 꿈을 도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코로나 19로 확진자가 속출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 2m 이상을 권장하고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안하는 한편 업장 영업시간을 저녁 10시까지 행정명령 방침을 단행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무렵 고향 학교 선생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나는 위로해 주기 위해 저녁 식사를 겸비해 반주를 나누며 심신이 지쳐있는 선배와 담소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

이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식당 문 닫기 30분 전 9시 30분경 식당 주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줄 것을 수차례 요청을 부탁드렸고 식당 주인이 여러 대리기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으나 일요일 주말인 관계로 기사분들이 하나같이 출근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들었으며 대리기사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한참 동안 대리기사가 오길 기다리다가 참다못해 바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 후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려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순간,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약 20m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순간 죄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교도소라는 곳이 사회와 단절되고 항상 감시와 견제 속에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어 선고재판 받기 6개월 전부터 감당하질 못할 고통과 악몽 속에 살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나날로 일상생활 등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이에 주야를 막론하고 수 없는 반성과 후회, 내 자신에 대한 원망과 속죄하는 인고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고 눈비가 와도 제때 잠을 잘 수가 없고 악몽 속에 시달리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하루하루 얼굴이 되되 해져가는 모습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내 아내는 혹시 모를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고 늘 잠을 잘 때까지도 걱정하며 감시해왔다. 아내는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할 바에야 차라리 하루속히 교도소로 들어가 췌값을 달게 치르고 새 삶을 영위하는 편이 나을 듯싶다며 조언을 하면 눈물을 보였다.

이런 아내로부터 힘을 얻어 그동안 집에서 6개월간의 은둔생활에서 벗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300여 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한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죄에 대해 속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했다.

청소 리어커에 반성·후회 다짐을 싣고

또 150여 명의 선후배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한분 한분에게 탄원서와 신분증 복사 사본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등으로부터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 받은 각계각층의 지인과 선·후배를 찾아뵙고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해 용서를 빌고 차량 매매 계약서와 뇌경색 진단서 등도 함께 제출해 조금이라도 선처해 줄 것을 간절하게 빌었다.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듯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동안 수십여 년간에 걸쳐 국내 중앙언론 매체, 스포츠 'S'사와 'A' 뉴스통신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동해온 신분으로 사회의 경종을 위해 발로 뛰어야 할 기자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함에 있어 자신의 음주운전 죄에 대해 재판부에 선처해 줄 것을 부탁드린 점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어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출소 후 사회의 한 일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봉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현재 나는 이곳 ○○훈련소에서 구내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재소자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교정 곳곳을 청소 리어커를 끌고 재소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각 사동의 3층까지 오르내리며 산티미처럼 쌓아 올린 폐지를 비롯해 비닐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악취 냄새 풍기는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온몸으로 봉사 실천을 하고 있다.

한 바퀴, 두 바퀴 청소 리어커가 굴러 돌아갈 때마다 음주운전을 범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복도 청소 닦아 낼 때마다 내 몸과 마음의 죄를 씻겨 내는 심정으로 후회하고 교정의 화단에 꽃을 심을 때도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끝으로 못난 아들의 죄와 몸을 걱정하시며 집에서 출소하길 학수고대하고 있는 홀어머니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작품평 : 언론사 사회부 기자를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구속·수감되었다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구내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진심어린 반성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은 형기도 봉사활동한다는 마음으로 지내면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술이 문제이니 나가서도 항상 술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너에게 달기를



김상원

저는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N-job리(여러직업) 이였습니다. 때로는 작가이기도 때로는 제빵사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전과도 있었지만 나를 열심히 살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고 교제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았고 산부인과에서 6주가 된 초음파 사진을 보며 여자친구도 저도 우리는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4주가 지나고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처음으로 아이의 심장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감동이었는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신기했습니다. 당연히 그 어떤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런 제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많이 불안했나 봅니다.

어쩌다 보니 여자친구와 저는 결혼 계획을 세우다 크게 싸웠고 “꽃씨”라는 태명을 가졌던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탓에 여자친구는 극심한 조울증,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수히 많은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 어떤 감정도 막연하게만 느껴졌고 여자친구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탈을 했고, 범죄를 했고 구치소에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자마자 여자친구가 접견 예약을 했지만 그 다음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접견이 금지되어 전화접견으로 대체되었고 그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너에게 당기를

코로나19 격리기간으로 인해 2주 동안 구매가 되지 않아 여자친구에게 편지도 쓰지 못하고 접견 금지로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3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간신히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2020년 12월이었고 2020년 12월 22일 문제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2주 동안 독거실에 있으면서 2020년 12월 22일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인터넷서신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우울증, 조울증 약 3주치를 몽땅 털어 넣고는 ○○대교라며 “이제 너는 살인자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도 보냈지만 편지는 너무 느렸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함에 찌들어 한 달,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끝끝내 여자친구와는 연락이 끊긴 채 2021년 2월 5일 첫 재판을 나갔습니다.

그 날 검사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공범 ○○○의 공소를 기각하여 주십시오. ○○○은 2020년 12월 23일 사망하여.”

아니길 바랐는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눈물도 목소리도 주변의 소리도 그 무엇도 나오지를 앓았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제 실수로 인해 공범으로 엮이며 잔뜩 겁먹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글쓰기와 책을 좋아해서 작가가 되었고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써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큰 범죄를 저지를 뻔했으나 그 순간에 양심이란 놈이 소리쳤습니다. “여자 친구를 생각해.”, “넌 행복해지고 싶잖아.” 그래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여자친구도, 가족의 신뢰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였고 27살 이라는 나이에 1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항상 저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언제 떠나지는 않을까” 심신이 힘들었던 여자친구는 저에게 많이 의지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오판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위에서라도 제 사죄를 받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글을 씁니다.

“○○○아 미안해.”

너의 그 무엇도 확실하게 만들어 주지 못한 채 불안하게만 만들어서 미안해.

우리의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고소공포증이 있으면서.

물도 무서워하면서

많이도 무서웠을 텐데.

내가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해.

이 글을 네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신체는 닿을 수 없겠지만 마음만이라도 너에게 닿기를

이렇게라도 너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작품평 : 여자친구가 아기를 가졌다면 주변분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어야지요. 결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크게 싸웠고 아마도 아기는 낙태를 했나 봅니다. 여자친구에게 찾아온 극심한 조울증과 우울증을 잘 위로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대는 죄를 지어 수감되고 말았고요. 공범이 된 여자친구의 ○○대학교에서의 투신자살 소식. 아아 안타깝습니다. 그곳에서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에게도 그녀에게도 용서를 빌면서.

감사와 용서를 구해봅니다



강성준

보고 싶은 어머니께
날씨가 아주 푸근해지는 봄입니다.
밝은 유채꽃이 피고 벚꽃이 날려 이맘때면 어김없이 벚꽃 구경을 좋아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볼러 볼 수 없는 “어머니” 처음에 나 같은 사람도 이런데 글을 남겨도 되는 건지 많이
고민했던 거 같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쓰고 지우며 몇 번을 반복될 때마다 흐르는 눈물 안에는
지난 시간을 재생하듯 많은 아픔과 보고 싶음이 있지만, 이제는 감히 볼러 볼 수 없는 어머니란
이름으로 보내 드리고 싶어 아들이 감사와 용서를 구해 봅니다.

저는 불혹이 살짝 넘어선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현재 2남을 키우고 있습니다.
철없던 20대 어쩌면 가족이란 무게가 생긴다면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일찍 하여 아기도 빨리 낳아 내 안에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이란 신세계를 좀 더 앞당겨
부딪쳤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노력에는 배신하지 않듯 20대 후반에는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내 집이 생겼고 30대를 들어서면서는 7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고 젊음이란 패기는 어느덧 욕망덩어리로 영원할지 알았던
제 인생에 저를 시험대에 올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노름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카지노를
배웠습니다. 무엇도 모르고 친구가 하는 데로 따라 하게 되면서 쉽게 돈을 버는 법을 알았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지옥의 늪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다음 저는 돈, 명예, 가족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댄 처음 아내는 이혼과 아이만을 남겨둔 채 떠나가더군요. 참 허망했습니다. 그렇게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빗만 쌓여 죽으려고도 하였지만, 당시 유치원을 다니던 아들이 눈에 밝혀 그마저 뜻대로 되는 건 없었습니다. 몇 년을 술로 지새우며 폐인 생활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은 기분이었고 세상을 벅박하게 바라보며 수없이 한탄만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리 순탄하지 못한 걸까? 분명 나로 인해 만들어진 삶을 왜 세상을 탓하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쥐구멍이라도 숨었어야 했는데 그때 몰랐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30대를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차처럼 과속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장모님과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아내는 제가 힘들었던 시기 유일하게 손을 잡아준 안식처였습니다. 아이가 있고 실패한 삶을 이끌어주며 다시 함께 일어서서 미래를 꿈꾸자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애지중지 키운 딸을 애가 있는 저 같은 놈에게 보내준다는 건 모두가 예상하듯 힘들었지만 유일하게 장모님께서서는 다르셨습니다. 당시 폐암 4기로 많이 쇠약해진 모습으로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딸을 잘 부탁한다며 눈물 흘리셨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껏 가족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 할머니 손에 자라온 제 삶에 장모님의 손길은 엄마와 같이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고 진심으로 느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프신 장모님을 모시고 ○○에서 ○○까지 암센터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시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 같았고 여유롭지는 않아도 가족이란 문을 조금씩 열어 들어갈수록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들 때쯤 아내는 임신하였습니다. 너무도 행복했고 기대감 설렘은 가장이란 무게감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잘 살고 싶은 욕심에 하던 사업은 실패의 고배를 마셨고 제 늘어진 어깨를 아셨는지 장모님께서서는 암 진단으로 받으신 보험금 통장을 손에 쥐여 주시며 응원하셨지만, 그마저도 기대에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무리한 투자로 인한 빚 그리고 사채로 고소를 당해 저는 2019년 사기로 구속되어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괴로움과 죄책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함으로 1년 6월을 10년 같이 매일 후회의 눈물로 지새울 어느 날 아프신 장모님께서서는 서신 한 통을 남기셨습니다.

감사와 용서를 구해봅니다

자필로 써넣어진 글에는

힘들지? 사위도 자식인데 아파서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엄마는 아들이 나올 때까지 늘 기다리고 있을게 너무 자책하지 말고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니까 나와서 잘 살자. 엄마는 아들을 항상 응원해.

이 서신을 마음에 담고 1년 6개월을 보내는 동안 장모님의 건강 악화 소식을 아내에게 들으면서 혹 나 때문이란 죄책감으로 숨이 멈출듯한 삶을 대신하였습니다. 힘겹게 시간이 더디게 갔지만 출소 날이 오고 장모님께서도 집밥을 차려주신다고, 아프신 몸으로 손수 상을 차려주셨지만 차마 눈물이 앞을 가려 손가락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 식사가 마지막으로 저는 장모님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꼭 기다리신 것처럼 암은 뇌와 심장에 전이되어 가족마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악화해서 더는 연명할 수 없다는 시한부 진단으로 한 달도 안 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꽃구경 한번 못가셨는데 이 사위가 모시고 간다고 해서 기다리신 1년 6개월이 너무도 늦은 건 아닌지 지금도 마음에 짐으로 남아 가슴이 아려 옵니다. 혹 나 때문은 아닌지 장례를 치르고 수목장에 고이 모시고 나서도 꼭 다시 제 손을 잡아주실 거 같은 사진 속 미소가 아직도 아른거려네요. 저는 현재 이전에 구속되었던 사건이 병합이 안 되어 분리 재판 중 법정구속이 되어 장모님이 돌아가신 한 달 뒤 8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였지만 선고를 받는 날 수목장에 가서 사위가 아닌 아들로써 어머니라고 불러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좋은 곳에서 이쁜 유채꽃 보며 행복하세요.

어머님이 사랑으로 남겨주신 이쁜 딸 제가 많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사위 아들이란 이름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네요.

작품평 : 해외여행을 가서 카지노 도박에 빠진 연예인이 있었지요. 어렵게 쌓아올린 부와 인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했나 봅니다. 일확천금은 사상누각입니다. 그렇게 번 돈이라도 착실하게 소비하게 될까요? 그 안에서는 결심을 단단히 해도 나오면 다시 빠져들곤 한다고 해요. 이제는 가족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간 못 한 남편 노릇, 아비 노릇 제대로 할 생각만 하기 바랍니다. 사위 노릇은 못하고 말았지만.

용서(容恕)



함기철

재판장님이 징역 4년에 처한다고 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휘청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동행했던 교도관께 물어보니 손가락으로 4년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1960년 12월 16일생으로 위로는 누님이 2명 있고 아래로는 3명의 동생이 있는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썽 많은 개구쟁이로 크면서 모르는 사람 없이 누구네 자식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정도로 짓궂기로 유명했습니다. 훗날 저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 많은 다혈질적인 성격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가족에게 줄 주는 모르고 받기만을 바랐으며 욕심은 어찌나 많은지 남이 가진 것은 꼭 가져야만 했습니다.

성인들의 취미생활인 카메라, 오디오, 모터바이크 등을 즐기며 아내와의 상의 없이 단독 결정하여 이를 자주 바꾸거나 구매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이로써 갈등의 골이 깊어져 전처와 이혼했으며 그 후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혈질인 저의 성격으로 인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당시 여성에게 특수상해 감금이라는 큰 죄를 지어 현재는 ○○구치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치소 생활 5개월째 접어들 무렵 우연히 사경을 알게 되었고 해당 불경을 베껴 쓰면서 구치소에 기증된 불교책과 제가 구매한 책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서(容恕)

공자님 말씀에 나이 60이면 이순(耳順) 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나쁜 말을 하여도 나의 귀에는 거슬림 없이 순하게만 들린다고 합니다. 저 또한 공자님 말씀대로 이순에 맞는 삶을 살아가며 가슴에 참은 인(忍)자 세 개를 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은 성질 급하고 고집이 세며 신경질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급한 성질과 센 고집을 참고 치솟아 오르는 신경질을 참으며 살아가려면 참을 인(忍) 세 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기심만 챙기지 않고 자비심을 품고 살겠습니다.

휴지줍기, 남이 사용하고 덜 잠근 수도꼭지 잠그기, 사용하지 않은 전깃불 끄기, 길 안내하기, 한 그루 나무 심기, 꽃씨 뿌리기,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소소한 덕행을 행하면서 나와 남을 살리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에게 지은 죄업을 모두 참회(懺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책의 내용대로 닦아 가고자 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합니다.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쫓값을 달게 받겠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합니다.

작품평 : 불경을 베껴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흡사 면벽 수도하는 불자처럼 그곳에서 마음의 수양을 하고 있네요. 욕심을 버리면 만사형통인데 인간의 그 욕심이 문제입니다. 4년의 형기라면 생각하기에 따라 길 수도 있고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4년 다닌다고 생각하고 웅맹정진하기 바랍니다. 몸은 벽 안에 있어도 마음은 절간에 있을 것입니다.

“용서의 글”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태워줄게

박자호

아이가 탄 목마를 끌고
오후의 산책을 간다
네가 까르르 웃는다
아이가 가진 반짝거림이다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곳에는
색깔스티커 카펫을 깔
우주가 있다

매일 매순간
아이는 새로운 우주로 들어간다
반짝이는 별들이 감싸고 도는
우주

울어서 눈이 툭툭 부운 날
너는 그 우주에서
요구르트 향의 숨 내를 풍기며 잠들었다

엄마,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오르골의 음들
왼손으로 그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듯
많은 꿈을 품은 사막들
재채기
체스보드의 킹
모두가 너를 위한 것이란다

엄마, 내가 이 잠에서 깨면
그때 다시 나의 목소리를 들려줄게요

그래, 그러면 나는 잠든 너를 보며
기다리고 있을거란다

나른한 시선과
그에 조금 더해진 신비감이
네가 올랐던 그 목마위에서
반짝임으로 감돌 때 쯤
난 너에게 말하겠지
목마를 태워줄게

작품평: 아이가 새로운 우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사막도 많은 꿈을 품고 있다는 표현에서 모든 존재들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한 오르골의 음들처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처럼 귀한 존재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목마를 탄 아이의 즐거운 함성. 긴 잠과도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을 시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포장마차

이
호
윤

“오늘은 냉이 바지락 된장국이야
이거 먹으면 뒹집어져.
소주가 아주 꿀떡꿀떡 넘어간다니까
일단 앉아 봐“

서울 지하철 건대입구역 3번 출구 앞
곰 두 마리 킁킁거리며 이고 가는
걸음을 붙드는 맛깔스런 호객행위

주황색 비닐천막
파란색 플라스틱 테이블
등받이 없는 불편한 의자

익숙한 풍경에 긴장이 풀린다.

곰 두 마리 앉혀 놓고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니 투박한 그릇에 담겨져
나온 냉이 바지락 된장국.

“인생 별거 있어 !?”

이슬이의 기운을 빌어
당차게 외쳐보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땡그랑’ 소리

멋쩍어 고개를 돌려보니 어디선가
빠져버린 나사 하나 바닥을 뒹굴고
누가 볼세라 서두려 갈무리해보지만
뜻 모를 시선을 던지는 이들.

조그만 소주잔에 담긴 딱 그만큼의
고달픈 그것이 목을 적시고
냉이 바지락 된장국
괜찮다며 쓰린 속을 달래준다.

오늘도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만...

작품평 : 잘 표현된 일상이야말로 시가 아니겠는
지요. 퇴근길의 셀러맨들에게 포장
마차는 쉼터가 아닌가 합니다. 힘들면
인생 별거 있냐고 하지만 실은 우리
인생이야말로 소중한데 어쩌면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회지의 지하철 입구에서 긴장 풀린
나사 하나가 소리 내어 뒹구는 모습이
왠지 쓸쓸한 저녁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림자 3

정정식

심장에 수없이 많은 눈이 달렸다
동공위에 어린 연민의 그림자
눈꺼풀에 어린 슬픔의 향배

하나의 동공은 하나의 마음
불면을 이루는 마음에는 작은 핏덩이
달지 못하는 시선을 향해 숨 죽여 있고

가시광선 밖에서 산란하는
아흔 아홉 마리의 순한 양떼들이
오늘도 길 잃었다 한다.

작품평: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표현될 수 없고, 표현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미지로 그것을 드러내려합니다. 상상이 그 일을 돕습니다. 심장에 수많은 눈이 달렸다는 것, 길 잃은 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아흔아홉 마리라는 것,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긴 밤의 그림자를 시인은 이렇게 밖에 노래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몽돌

한상혁

네모난 구름을 본 일이 있는가?

세모난 바람을 보았는가?

흐르는 물은 제 모양을 고집하지 않는다.

파도에 자유롭게 몸을 맡기어 이리 저리

구르는 몽돌은 밝은 윤기가 흐른다.

모난 내 마음도

구르는 몽돌을 닮았으면 좋겠다.

작품평 : 모나지 않은 구름과 바람처럼 둥근 몽돌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몽돌이 처음부터 둥글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난 곳이 깎이고 깎여 그리된 것이지요. 사람도 그럴겠지요. 자연이 그렇듯이요. 우리 모두 다른 모습을 지녔지만 사람들의 마음만은 둥글어져서 세상 사는 것도 둥글둥글했으면 좋겠습니다.



집 견

이
선
범

가벼운 발걸음
수줍게 빗질하고 내 님 계신 방
문 열러 길을 나선다

타이머가 지켜보는 잔인한 독대

얇미운 아크릴판 너머
흔들리듯 흐느끼는 하얀 계란꽃

그저
떠나보낼 세월 속에 시나브로
스며드는 흐리고도 짙었던
십 분의 기억일 뿐일 텐가

시간아 멈추거라
이 내 육신 불에 타도 좋으니
일각만 멈추어다오

무거운 발걸음
시선 끝 내 앞에 놓고 간
그대 좇놈 때문인가

코끝이 시려워
당신 고운 향기 끝내
담지 못한 미련
때문이던가
후우우우~

내 가슴속 뜨거운 내 온 숨
다해 힘차게 불어 날린
민들레 흩날려

부디
저 바람에 실려
내 님 가시는 길
밝혀주고 보살펴주소서

작품평: 모든 것이 찰나임을 생각해봅니다.
간절하면 시간도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할 순 없지만
그 순간순간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아말로 귀한 것이겠지요. 뜨거운
좇놈 같은 눈물이 흐르는 마음을
다잡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길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난
시편입니다. 민들레 흩날리듯이 그
사람을 향해 날아가고 싶어집니다.



소금쟁이

최지홍

늘어지는 깨난 정오의 한낮
창밖의 바람하고 실려 오는
생 녹즙 풀냄새 기분이 좋아요

가만히 눈 감고 있자니까
슬며시 졸다가 아차! 눈떠보니
흙탕물 먹구름 단비가 시원해요

커피 우유색 얇게 물 고인
웅덩이를 가만히 보자니
문득 소금쟁이 떠올라 코가 매워요

비 내리던 어느 해 여름
골목길에 고인 물 위 떠 있는 신기한
소금쟁이를 알려주던
엄마가 코끝 찡하게 매워졌어요.

작품평: 나른한 졸음을 깨우는 단비와 그 단비가 만들어낸 웅덩이, 그 웅덩이에 떠오른 어릴 적 소금쟁이가 엄마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운 엄마를 생각하자면 무엇인들 매개체가 되지 않겠는지요. 고요한 추억을 가진 시인과 시인의 어머니가 코끝을 찡하게 합니다.





조용

방영석



나는 아파야 한다.

두드려 맞아야 사랑하는 그에게 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알려려면

당신을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려면

아파야 하고 두드려 맞아야 한다.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소리를 내며

당신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

나는 더 아파야 한다.

내 소리!를 듣고 나에게 다가와 줄 당신을 기다리며...

나는 더! 아파야 한다.

작품평: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종소리에도 긴 손가락이 있다는 시가 생각납니다. 맞아야 우는 종.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더 아파야 한다는 절규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프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 울리는 종소리가 되어 더 멀리 마음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흑장미 꽃 한송이

배
순
자

오늘 내가 그대에게 보내는 흑장미 한송이.
전생에 뉘 가슴에 맺혔던 피방울인지...

사랑없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삶은
가슴 안에 꽃이 될 수 없다네.

삶에 있어 최상의 행복인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꽃이 될 수 있다네.

만족을 알면 나물밥도 감미로운 꽃이 된다네.

고마움을 알고. 열정으로 산다면
흑장미꽃도. 가슴속에서 활짝 핀다네.

작품평: 꽃들은 생명이 피워올린 핏방울이 아니겠는지요.
사랑이야말로 사람이 피워낸 꽃이겠지만 그 꽃은 희생과
양보와 이해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확신은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푸성귀로 비빈 나물밥이 꽃이 된다는 비약까지
있겠지요. 그 마음들이 바로 꽃이란 생각이 들게 하는
시입니다.





빨간 고무통

권산이

다양한 빨간 다라이

어릴적 그해 여름에 욕조도 없고 풀장도
갈 수 없었던 시절
오빠와 내가 놀던 빨간 고무통

한때 세탁기가 없던 시절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이불과 빨래를 넣어서 가족끼리 고무통에
들어가서 지근지근 밟는 수동 세탁기 빨간 고무통

김장날이 되면 배추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소금에 절여두는 고무통

옛 시절 아기들이 목욕도 시키는 도구로도 쓰였던 빨간 고무통

지금은 빨간 고무통 찾기는 힘들다
그 대신 빨간 플라스틱 다라이가 흔해졌다

작품평 : 고무통 하나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가난한 그러나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흔치 않은 물건이 되었지만 여전히 쓸모 많은 그릇이기도 합니다. 아기씻기는 욕조도 되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세탁기도 되어주고 김장배추도 절이던...하나로도 충분했던 그 가난이 왜 그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질문」을 읽고

이소영



코로나 엔데믹이 과연 될까? 언제부터인지 일상 회복의 염원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이곳에서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규제가 풀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에 희망이 보이는 요즘이다. 최근에 읽은 책이 다산의 “마지막 질문”인데 소내 방송에서 독후감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용기를 내본다. 내가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고 목민심서 그리고 귀양살이가 내가 아는 전부인 것 같다.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을 보면서 정말 큰 업적을 이룬 훌륭한 사람이란걸 알았다. 책 제목대로 과연 다산의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다섯 번을 읽었다. 독서는 만권을 읽듯이 한 권을 새기듯 읽으라고 했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곁에 두고 공부하듯이 참으로 진지하게 읽었던 것 같다. 우리는 왜 유독 다산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닮고자 하고 존경하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책을 보면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답이 보인다.

다산 정약용은 마흔이 안된 젊은 나이에 형조참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비극은 자신을 아끼던 정조가 승하하는 바람에 20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하게 된다. 가장 잘나고 찬란했던 때에 순식간에 곤두박질하게 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기약할 수 없는 삶일 때 흔들리는 자신을 단단히 잡아주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논어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논어는 2500년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모은 책으로 서양철학이 플라톤이라면 동양철학은 단연 논어가 아닐까? 내가 읽은 논어와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읽은 논어 그리고 다산이 읽은 논어가 모두 같은 책일 텐데 난 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되어있다. 제1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멈추지 말고 성장하라. 성찰이라는 단어에 문득 반성이 된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에도 나오는데 이곳에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시간 관리하면서 알차게 보내고자 결심은 했지만 무너지고 말았다. 나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져본다. 소영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고 한숨이 나오고 부끄럽기만 하다. 이곳에 있다는 게 실패한 삶이 아닐까? 내가 있는 자리가 날 말해준다. 20년 귀양살이 동안 힘든 시기에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는 노력과 못다 한 학문을 완성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험난하고 척박한 귀양살이를 견딜 수 있었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용기 때문이 아닐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서 난 이곳에서 뭘 해야 하는지 날마다 깨어서 고민하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안 생활을 잘하고 좋은 책을 항상 가까이하면서 실천하다 보면 조금씩 성장하리라 믿는다.

제2장은 화광동진(和光同塵) 물들이고 싶거든 먼저 물들여라. 어른의 관심은 과시가 아니라 귀감이 되고 스스로를 볼 때 눈을 가늘게 뜨라고 한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세세히 살펴서 반성하고 고쳐나가고 하루하루 산다면 어제보다 나은 삶,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리라. 매 순간마다 나와 남을 사랑하라는 공자의 핵심철학으로 어쩌면 다산은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른다. 다산의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본다. 다산 정약용의 둘째형 정약전도 함께 귀양살이를 떠나서 흑산도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어류를 연구한 결과 자산어보라는 실학서가 나왔으니 형제가 참으로 대단한 분들 같다. 학문을 향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고 다산의 대작인 여유당전서 등 모든게 그냥 이루어진게 아닐 것이다. 천재의 번뜩임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피와 땀으로 빚어낸 학문을 향한 열정 때문이리라. 다산이 고비때마다 흔들리지 않았던 바탕에는 지식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복사뻬에 세 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집필에 매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건 지식, 사랑, 용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용기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마지막 제3장은 위도일손 매일 하나씩 보태고 매일 하나씩 버려라. 어른은 세상이 불편해지면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수양은 쉽지 않다고 한다. 이 책의 주제인 어떻게 나를 사랑할지는 평생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며 내버려 두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나를 지켜내는 힘은 배움과 통찰이다. 이 책을 요약해보면 다산의 삶은

논어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다산에게 새겨진 학자로서 정체성이 없다면 험난한 귀양지에서 허무하게 끝날 수 있었지만 여유당전서라는 위대한 유산은 평생 쌓아온 학문의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삶을 통찰하는 지혜와 자신을 사로잡는 힘을 얻기 위해 논어에 길을 물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을 가다듬고 귀양살이를 견디었으리라.

나의 징역살이를 무섭게 성찰해 본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남는 것 같다. 나 자신이 예전보다는 단단해진 것 같고 한 뼉 자란 어른이 된 기분이다. 단 하루라도 다산처럼 살고 싶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날 점검할 것이다. 무너지는 마음을 다스리고 당당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가다듬고 늘 성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삶은 이곳에 있는 나에게 필요한 삶인 것 같다. 매일 새벽마다 비를 잡고 마당을 쓸면서 일상에 충실하는 습관으로 중용의 삶을 실천하는 다산을 꼭 본받고 싶다. 삶을 통찰하는 지혜는 끊임없는 자기 수양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수용생활에서도 매일 아침 걸레를 잡고 방을 닦으면서 겸손해지고 싶고, 긴장하면서 죄를 닦아내고 싶다.

끝으로 무너지고 굶이치는 내 삶을 잡아주고 날 성장하게 해준 다산과 논어는 어떻게 날 바르게 세워줄지 많은 기대가 된다. 다산이 나에게 묻는다. 삶을 바꿔서 사람답게 살 것인가? 지금처럼 어둠속에서 실패한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 것인가? 정해진 해답을 향해 나는 날마다 조금씩 가고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다산처럼 수시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고 싶다. 일상에 충실한 습관을 꼭 실천하고 싶다. 이곳에서 출소하는 날에는 달라진 모습을 남편과 어머니 아들에게 변화된 내 모습을 꼭 선물해주고 싶다.

작품평 : '다섯 번을 읽었다니 얼마나 좋은 책일까라는 궁금증이 먼저 드네요. 들어가기, 본문, 나오기 세 부분으로 형식을 나누었고 본문에서 3장으로 된 책을 잘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꼭 선물해주세요. 이 글과 함께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읽고

이태희



사람은 늘 지난 일을 후회합니다. 저도 매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며 법을 어겨 교도소에 갇히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말이지요. 하지만 정말로 시간을 되돌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른 소설이 바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인간관계는 엉망이 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사는 35살 ‘노라’는 지긋지긋한 인생을 저주하며 자신의 방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깨어보니 어느 도서관 안이네요.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2시에 멈춰있었죠. 그 곳은 삶과 죽음의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요단강을 반쯤 건너다 멈춘 상태라고 할까요. 어리둥절한 노라 앞에 등장한 도서관 사서는 후회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니 원하는 책을 골라 보라고 말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긴 책장에는 노라의 다양한 인생이 적힌 책으로 가득합니다. 만약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원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라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선택으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수많은 노라들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평행세계, 즉 멀티유니버스가 떠오르기도 하구요. 주인공 노라는 결국 되돌리고 싶었던 과거가 적힌 책 한권을 펼쳐듭니다. 그리고 또 한권, 다시 또 한권. 다양한 인생체험을 반복하는 노라.

과연 그녀는 완벽하게 행복한 인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죽음을 택한 마음을 접고 현실로 돌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지. 노라와 동행하는 성찰의 시간이 무척 흥미롭고 인상 깊었습니다.

우린 과거의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후회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다’라는 명언도 있지만 ‘아. 그때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었나봐’라는 자책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나도 이 책을 읽다보니 지우고 싶은 수년간의 기억이 강제로 소환됐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던 순간부터 재판을 받고 가족과 이별하여 이곳에 수감되기까지의 시간들. 마치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지나갑니다. 다행히 지금은 가족의 사랑과 믿음 덕분에 새로 태어났다는 각오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췌장을 치른 후에도 제게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매순간 새기면서요. 혹시 저도 노라처럼 생과 사의 경계선에 있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 다녀온 적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교차로를 지나며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원하는 인생에 안착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렇게 생각하니 제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까우리 만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재미있는 소설은 독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 속으로 확 끌어당기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더 멋진 소설은 책 밖으로 넘친 감동으로 우릴 변화시키죠. 이 책이 그렇더군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내민 위로의 손길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누구라도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또 하루를 선물 받았음에 빙긋 미소 지을 겁니다.

노라는 말합니다. “인생은 이해하는게 아니야. 그냥 사는거야” 라구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찌 이해하며 살겠어요. 그저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나를 잘 산 겁니다. 우린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슬픔이 없는 삶은 없다는 걸 이해하면, 사는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슬픔은 본질적으로 행복의 일부라는 사실도요”라고 말하는 노라의 조언도 마음에 담아봅니다.

책을 읽은 후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내와 딸도 재밌게 봤다면서 소설 얘기로 소통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쉽게 읽히며 나풀나풀 넘어가는 페이지에 장르소설의 재미를 담뿍 엮고 심장 울리는 몽클함까지 술술 뿌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읽는 이 마다 다른 색채로 빛날 보석 같은 소설입니다. 자, 인생 소설 한권 만나러 함께 자정의 도서관으로 떠나볼까요?

작품평 : 책을 읽고 집으로 보내 아내와 딸과 소설 얘기로 소통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독서의 실천이 어디 있을까요.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적힌 책을 펼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흥미를 끄는 소설이네요. 당신은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신민철



우리는 보통 편의점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고, 직원의 응대 역시 친절한 편의점이라는 단어 중 편의 의미하듯 편리함이 가장 어울리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아버지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역시 편리함을 강조하시는 걸로 보아 편리함과 편의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듯 한데...

그래서인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책의 이름만으로 내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편의점이 불편하다고?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책은 달리는 KTX 열차를 배경으로 시작한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무리 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염영숙 여사는 사촌 언니의 장례식장 참석을 위해 부산으로 가던 도중 지갑이 들어있는 파우치의 부재를 깨닫는다.

열차에 탑승하기 전까지의 행적을 되짚어 보던 도중 전화를 받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역에서 파우치를 습득하였다는 노숙자로 의심되는 이의 전화였다. 안심하며 도시락 하나 사서 먹어도 되겠냐는 말에 음료도 사먹으라는 아량을 베푼 후 서둘러 돌아온 염여사의 눈 앞에 펼쳐진 것은 파우치를 뺏으려는 노숙자 무리와 그것을 지키려는 노숙자 독고씨의 결투.

노숙자 무리를 쫓은 후 파우치를 돌려받는 데에 성공하는데 이것이 염여사와 노숙자 독고씨의 첫 만남이었다. 고마운 마음에 제안한 사례를 거절하는 독고씨에게 염여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가 도시락이라도 먹고가라고 제안한 후 이후에 언제라도 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러던 와중 심야 시간을 책임지던 성필씨가 다른 일을 하게 되어 구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가게에 방문한 어린 제이에스를 도시락을 먹기 위해 방문한 독고씨가 등장하여 해결해 준 일을 명분 삼아서 심야시간 아르바이트를 독고씨에게 제안하게 된다. 이후의 내용은 독고씨가 청파동의 ALWAYS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엮어 놓았다.

아무래도 노숙자 출신이다보니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진 채 독고씨에게 편의점 업무를 교육하던 시현. 그렇지만 첫인상과 다르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독고씨에게 점차 마음을 열게 되고 제이에스 퇴치에 도움을 받고 난 후 그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교육에 소질이 보인다며 유튜브에 올려 보라는 독고씨의 권유에 가벼운 마음으로 업로드한 ALWAYS편의점 기기 사용법 영상 덕분에 다른 ALWAYS편의점의 점장으로 이직하게 된다.

역시 독고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던 오선숙 여사. 그녀는 남편이 가출을 했고 잘나가는 대기업에서 1년 2개월 만에 도망쳐 나온 후 방에 틀어 박혀 게임만 하는 아들을 둔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그녀에게 독고씨는 오히려 오여사님이 아들과 대화할 준비도 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듯하다며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아들의 이야기를 한 번 찬찬히 들어보라는 솔루션과 함께 위로를 건네었고. 그녀는 앞전의 좋지 않았던 시선, 감정, 선입견을 모두 없애고 그를 존중하게 됐고, 그가 제시한 솔루션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영업을 하는 경만씨와 작품을 쓰는 극작가 인경씨도 각각 독고씨의 마음 따뜻한 조언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게 된다. 이들 역시 독고씨의 겉모습. 어눌한 말투만 보고 그를 깔보며 무시했었지만 그의 진심어린 조언에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는 염여사와 그의 아들의 관계 개선 이야기도 이어지고 독고씨가 왜 독고씨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지. 지난 날의 과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 하는데 나는 이런 부분보다 독고씨를 향한 색안경을 벗어내는 그들과 벗겨내는 독고씨의 따뜻한 마음씨가 더욱 더 와닿았다. 공감이 많이 갔기 때문이다. 외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도록 하라는 이야기. 우리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내면을 보는 것보다 외면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나역시 그랬던 듯 하다. 내면을 가꾸려고 하기보다 외면을 치장하는 데에 집중했고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에도 외면만을 봐왔던 듯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진면목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 있다. 외면이 탐탁치 않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은 채 평가하고 그 사람의 판단을 끝내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시현씨가 오여사가 그리고 염여사가 그랬듯 처음으로 돌아와 불편한 편의점은 무슨 의미였을까. 청파동 언덕에 있는 편의점은 판매하는 상품의 가짓수도 많지 않고 따라서 행사 상품도 많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응대 역시 무뎡뎡한 불편한 편의점이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씨의 남의 외면보다 내면을 볼 줄 아는 독고씨의 등장과 함께 편리한 편의점이 될 수 있었다. 본인을 찾아 떠난 독고씨가 없아도 이곳은 불편해지지 않을 것이다. 염여사님도 오여사님도 이제는 알고 있을테니말이다.

제목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이 책은 꽤나 묵직한 교훈과 함께 훈훈함으로 가슴에 남을 듯 하다. 당장 오늘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로 대화를 시작해보아야겠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의 내면을 진면목을 볼 수 있게!

작품평 :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 독고씨 같은 알바생도 있군요. 짧은 독후감으로 한 권의 소설을 다 읽은 것 같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 편리한 편의점이 되는 과정이 다양한 에피소드로 펼쳐지네요. 따뜻한 마음씨로 내면을 볼 줄 아는 독고씨 같은 분이 주위에 있나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읽고

이원준



울타리 밖에서의 삶도, 이곳 울타리 안에서의 삶도 우리가 원하는 삶이든, 원치 않은 삶이든 변함없는 소중한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잘살아가고 있는걸까요?

어떤 이들은 울타리 밖에서의 삶보다 울타리 안에서의 지금 이 삶에 더 열심히 보람찬 하루 하루를 살아가기도 할테지만, 반대로 지금 이곳에서의 삶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하루 하루를 낭비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굴레속에 가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책은 저의 향소심 재판 직후 아버지께서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보내준 도서였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할 당시 저는 이 책의 표지만 보고서 딱딱하기만한 서양 철학서일거라는 생각이 들어 책장을 펼치기가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어느새 많은 분들께 제가 느낀점을 공유하고자 독후감까지 쓰게 되었네요.

이 책은 하버드 엘리트들이 전하는 성공 바이블로써, 좋은 성격, 자신감, 좌절을 이겨내고 또

감정을 다스리는 등 하버드대 출신들의 공통적인 10가지 특징을 통해 그들의 자아실현 과정을 보여주고, 성공 사례를 총망라 하였습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성공을 이끌어 낼 방법은 무엇일까?’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과 고민에 만족할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책이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 없겠지만 이 책을 통해 그들의 성공 이면에 숨어있는 하버드 정신을 깨달아 나만의 가치를 실현한다면 나만의 절대적인 정답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의 구성은 제 1강부터 10강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1~10강중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몇강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제 1강은 ‘성격은 자아실현의 기반’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인성과 겸손을 갖추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1강에서는 빌게이츠 같은 세계 최고의 부호도 자신의 성과에 취해 자만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몸을 낮춰, 타인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이야기는 겸손이 성공의 길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제 3강 ‘좌절 속에서 이뤄지는 변화’는 제가 가장 좋아한 주제였는데요.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된 주제였던거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좌절을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추진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리해고라는 운명과 마주한 엘사와 리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 이후, 엘사는 매일 깊은 실망감에 화풀이로 남은 업무를 대충 처리하였고 그 결과 예정보다도 일찍 퇴사하였지만, 리카는 이에 연연하지않고 본인의 부족함을 탓하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면 만회의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고, 해고가 아닌 오히려 부팀장으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오히려 리카처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 주제는 마치 제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형 생활을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저를 위한 메시지 같았습니다.

제 8강은 ‘행동하라. 바로 지금!’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목표도 있을것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목표도 있을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이 실현되었을 때의 멋진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곤 합니다. 저는 주로 잠들기 전에 한번씩 달라질 미래를 상상해보곤 하는데 우리가 떠올린 좋은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을 실현했을 때의 장밋빛 미래는 우리가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실재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끝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천은 핑계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내일, 일주일 뒤, 한달 뒤 등의 그저 기약없이 미뤄지기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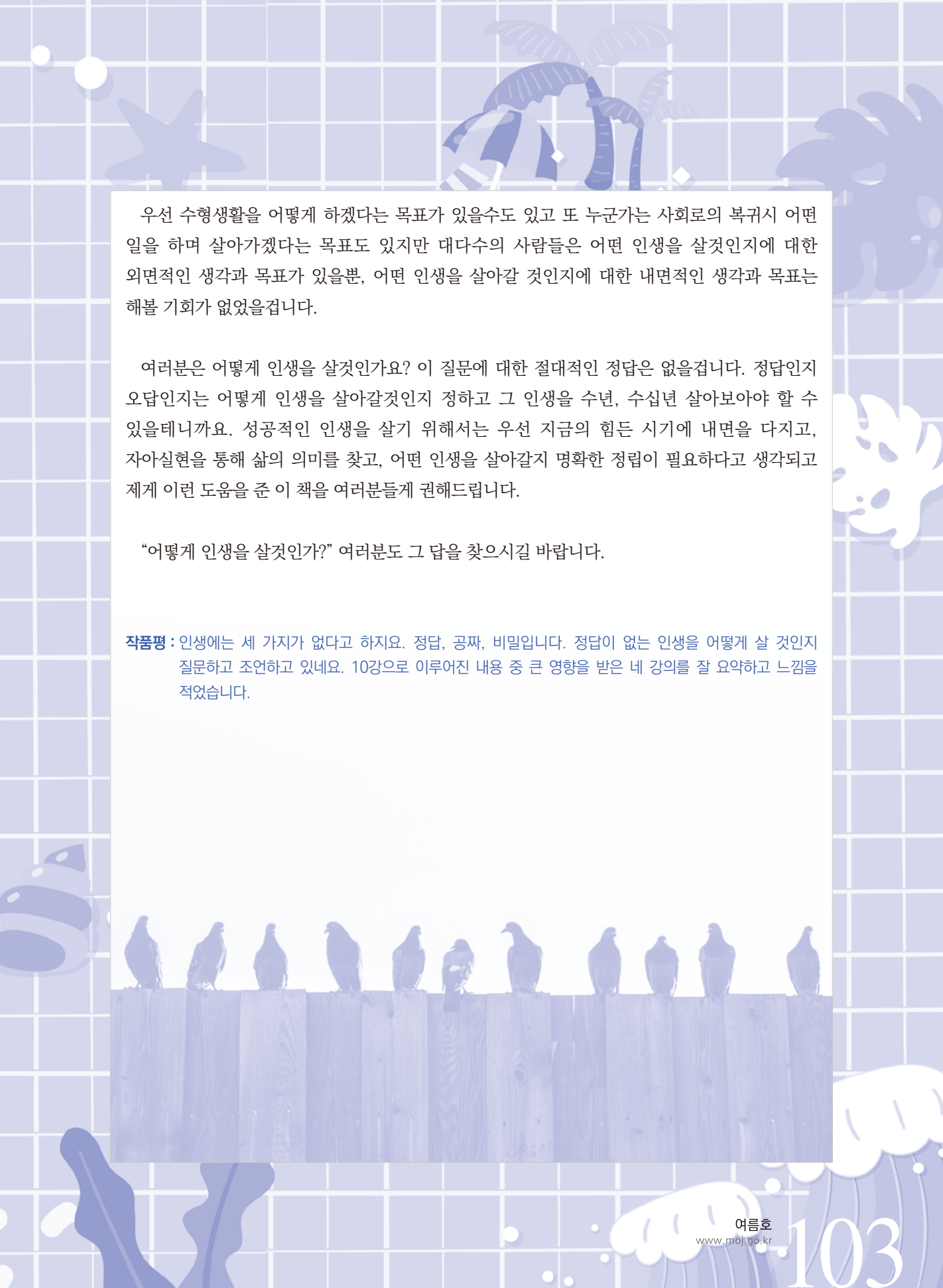
제 10강은 ‘일은 자아를 실현할 최고의 무대이다.’로 이 책에서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일’이라는 수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아실현이란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찾아내 이를 십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속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아를 발견하여 자신의 자리를 찾고, 수동적인 행동이 아닌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적극성을 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아실현 기반부터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무대로까지 이끌어주며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것인가’라는 책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게 되면 제가 지면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희망을 안고 시작하라’, ‘오늘에 그리고 지금에 충실하라’ 등과 같은 코멘트는 진부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도 색다른 여러 사례로 새롭게 접한다면 다르게 와닿을 수도 있고, 아는 것도 다시 읽으면 새로울 수 있죠.

저는 이 책을 여러번 읽는 동안 매번 새로웠던거 같습니다.

책의 내용이 새롭다기보다는 이 책을 정독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것인가” 자문하였고 여러번의 자문 모두 제 자신에게 다른 새로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각기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선 수형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을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사회로의 복귀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는 목표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것인지에 대한 외면적인 생각과 목표가 있을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면적인 생각과 목표는 해볼 기회가 없었을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은 없을겁니다.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것인지 정하고 그 인생을 수년, 수십년 살아보아야 할 수 있을테니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힘든 시기에 내면을 다지고, 자아실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게 이런 도움을 준 이 책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것인가?” 여러분도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작품평 : 인생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하지요. 정답, 공짜, 비밀입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질문하고 조언하고 있네요. 10강으로 이루어진 내용 중 큰 영향을 받은 네 강의를 잘 요약하고 느낌을 적었습니다.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을 읽고

한대희



감형, 감량, 감속!

올해 초 법무부 사회복귀과에서 배포한 [새길지] 달력에 삽화로 먹음직스럽게 그려진 꽃감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저런 꽃감은 못 먹을 것이니 핑 대신 닭이라고 제가 꽃감 대신 철창 안에서 구하기로 마음먹은 세 가지 '감'입니다.

우선, 딱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형량 최소화를 위한 감형. 다음으로 하루 세끼 정시에 호텔식으로 룸서비스 되는 삼찬일국으로 덕지덕지 달라붙은 비계 덩어리의 감량. 마지막으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여태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길에서의 감속. 이 셋 중에서도 으뜸은 저에게 감형이었습니다.

구속 전 헌법 1조도 정확히 몰랐고, '형법'이 일종의 가족법인줄 알고 '누나법'은 왜 없는지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감형을 위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쓴 법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수십 권을 읽고, 현암사 <대법전>을 수십 번 빌려 봤습니다만, 그 중에 백미는 프레드릭 샐리의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이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검사의 공소와 구형의 근거와 논리, 판사의 양형판결 선고 기준과 그 영향인자를 알게 된다면 왼쪽 뺄만 맞으면 될 것을, 몰라서 오른쪽 뺄까지 맞는 억울함은 없을 것입니다.

“21c에 살아남으려면 변호사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20c 막바지에 하버드대학 총장이 졸업식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프레드릭 샤워의 주제의식과 일맥상통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주 확실한 물증으로 방패를 삼고 송곳보다 날카롭고 칼날보다 서슬 퍼런 논리의 말빨로 창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 용어를 사용해 알기 쉽게 풀어 세 마디로 재판 순서에 맞춰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의 사실(증거) 확인
- 2) 형량을 좌지우지하는 공소 죄명 검증
- 3) 검사 구형의 칼을 막기 위한 <양형기준>에 의한 변론전략

사실 위의 세 가지가 감형을 위한 ABC이자 핵심입니다. 프레드릭 샤워는 법률가를 일종의 축구경기 심판으로 여깁니다. 악을 뿌리 뽑고 선을 구현하는 정의의 사도보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룰과 규칙을 제대로 인간 세계의 경기장에 적용하는 인간 사회의 주심과 부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선과 정의가 법과 교집합 관계이지 1대1로 합동인 동일체가 아니라고 예리하게 집어내 설명합니다. 즉, 항상 법의 집행이 선을 구현하고 정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냉철히 분석해 논증합니다.

막연히 검사가 정의의 저승사자이고 판사가 선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은 프랑스산 치즈처럼 군데군데 구멍 난 사고체제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의의 구현과 선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능력 있고 양심적인 법률가의 배양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정의와 선에 근접한 법체계의 개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의와 선은 법에 있지 판검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망원경적인 큰 시야의 이야기와 현미경적인 당장 시급한 뜨개질 같은 시야의 실무적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망원경. 변호사적 마인드 즉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이란 물증과 말빨이라는 것.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두 수레바퀴인 빅 데이터와 AI(인공지능)에 해당되고, 더 쉽게 말하자면 음식 재료와 요리법이라는 것. 故 김윤식 교수님이 강의시간에 말씀하신 논문을 박살내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이 둘의 아킬레스건을 칼로 자르면 된다는 것. 하나는 참고한 문헌과 주석을 뒤집는 더 최신의 확실한 물증을 들이대는 것(귀납적 방법). 다른 하나는 서론-본론-결론의

논리의 말빨 중 비약이나 오류를 꼬집어내 톡 건드려 논문의 건축물을 붕괴시키는 것(연역적 방법). 이는 학문 세계뿐 아니라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끝으로 현미경. 형량 최소화를 위한 감형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형사 재판의 비밀>의 노인수 변호사와 <판결문을 낭독 하겠습니다>의 도우람 판사의 비기, 위에 쓴 1)~3)에 각각 대응하여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사건기록(검찰)/재판기록(법원) 열람, 등사를 통한 사건의 빅 데이터인 사실(증거)확인
- 2) 법전 대여를 통한 공소 죄명 검증
- 3) 대법원 <양형기준>을 통한 감경인자로 가성비 높은 경제적인 변론 전략 수립으로 형량 최소화

2년 넘게 복역하고 올해 연말 ‘따스하고 부드러운’ 칼바람을 맞으며 사회라는 더 큰 감옥으로 나갑니다. 두부 사들고 떨고 있던 그녀가 서리에 손이 달라붙는 철문을 열고 나간 제게 3년여의 소회를 묻는다면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절반을 더 살고도 절반을 다 못 깨친 이 미련하고도 답답한 어리석은 제게 시간의 감옥 한 평이 3년간 가르쳐준 것은 3개의 단어.”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작품평 : 꽃감 대신 구하기로 마음먹은 ‘감’이 위트 있네요. 형량 최소화를 위한 감형에 확실한 물증과 논리의 말 빨이 필요함도 알았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도 의미 심장합니다. 감형, 감량, 감속의 다짐이 꼭 이루어질 바라요.

“독후감”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큰형님, 막내가 죄송해요. 너무



김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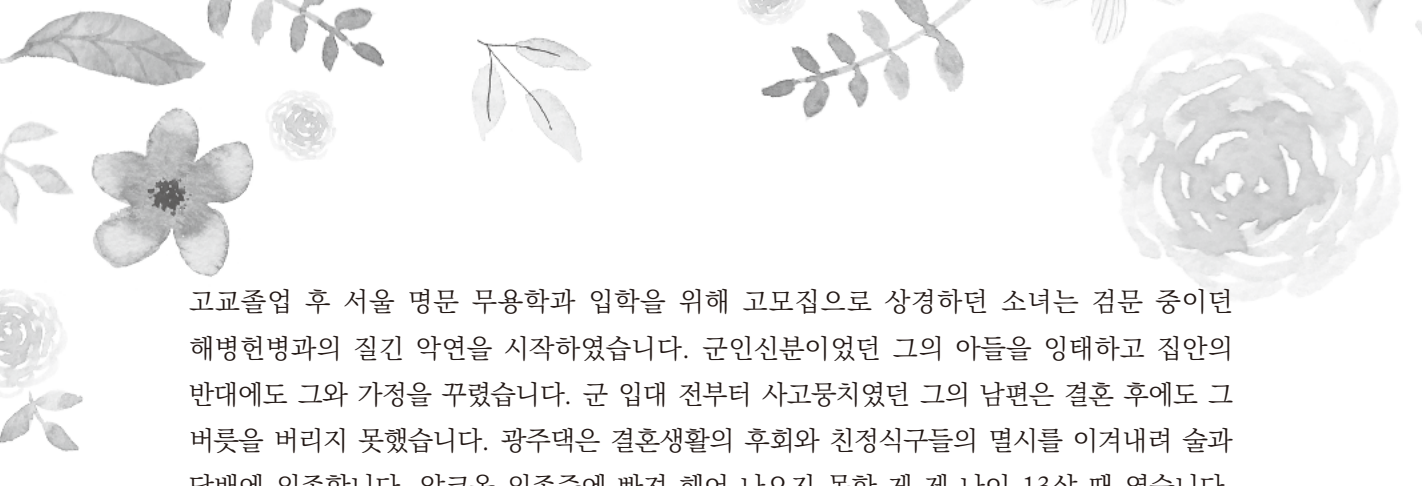
악몽을 내리 닳새째 꾸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아내, 더 멀어져 가는 두 아들. 호숫가 한가운데 놓여있는 저는 순식간에 발목아래가 열기 시작합니다. 이러지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제 모습에 아내와 두 아들은 떠났습니다.

바스락거리며 눈을 어렵게 떠봅니다. 크고 작게 올려대는 코골이가 귀를 간지럽힙니다. 천정 위 건조대에는 동료들의 옷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제서야 수용번호 〇〇〇번 이라는게 느껴집니다. 이곳은 〇〇교도소 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중하게 가정에 충실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편협 된 생각 속에 제 앞길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라는 상념에 잠깁니다. 마음속에 내재된 여러 가지 상념이 그렇게 꿈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념이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이 현실이 될까 겁납니다. 모질고 아파도 이겨내야 할 제 것인데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멀게만 느껴지는 시간의 터널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2월 18일은 어머니가 이승과 인연을 끊으신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악몽이 되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광주댁으로 불리셨던 어머니, 육척거인이셨던 아버님과 모진 인연으로 반평생을 고난 속에 사셨던 광주댁입니다. 그 시대 상당한 미모와 재원을 겸비하셨던 광주댁은 경찰고위간부의 천금 같은 큰딸로 태어났습니다.



고교졸업 후 서울 명문 무용학과 입학 을 위해 고모집으로 상경하던 소녀는 검문 중이던 해병헌병과의 질긴 악연을 시작하였습니다. 군인신분이었던 그의 아들을 잉태하고 집안의 반대에도 그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군 입대 전부터 사고뭉치였던 그의 남편은 결혼 후에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광주댁은 결혼생활의 후회와 친정식구들의 멸시를 이겨내려 술과 담배에 의존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 게 제 나이 13살 때 였습니다. 두분의 인연 또한 이때 끝났습니다.

지금도 어렵듯이 기억나는 그날 어둡고 칙칙한 방 한구석에 쪼그려 울고 있는 소년, 그날은 그 소년의 인생 최초 수학여행 날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광주댁을 다시 보았습니다. 헬썩해진 얼굴로 고교생이 된 막내아들 앞에 나타난 광주댁, 진저리내며 외면하는 막내를 뒤로하고 학교 경비실에 맡겨둔 한 치수 큰 위크엔드 점퍼와 프로스펙스 운동화. 막내는 큰형의 헌신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광주댁이 막내를 다시 찾은 건 막내의 군 시절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그날 광주댁은 ○○ 해병특수수색대 면회실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볼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6주의 수색훈련기간 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주댁은 어린 자식을 등지고 떠난 죄책감에 막내라는 측은함에 그렇게 막내를 찾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주댁이 제 어머니였고 지금은 먼 하늘나라에서 못난 막내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결혼을 망설였던 이유이기도 한 부모님의 과거사를 들추자니 마음이 아픕니다. 비록 이렇게 중죄를 저지른 죄인이지만 저는 결혼 후 부모님처럼 되기 싫은 마음에 누구보다도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손찌검이나 큰소리 한번 낸 적 없습니다. 항상 경청하고 소통했습니다. 이런 제가 아버님 소식을 접한 건 사십년이 다 되어서 였습니다. 서울 어느 장례식장에 안치되셨다는 이야기에 처음엔 찾아뵙기를 주저했습니다. 큰형님의 부탁과 아내의 설득으로 삼형제는 늦게나마 자식 된 도리로 아버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마음 한 구속에 응어리진 아픈 과거도 함께 보냈습니다.

혈육 간의 왕래가 없던 그 사십 여년의 세월동안 큰형님은 장남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동생들에겐 숨기면서도 묵묵히 아들의 도리는 다하셨습니다.

큰형님은 대학시절 토목을 전공하셨습니다. 지금은 굴지의 대기업이 된 건설업체의 초창기 멤버시면서 고위 임원이셨습니다.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사회인으로 미래가 밝던 큰형님은 제

나이 14살 되던 해에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동생들을 품에 안기로 걱정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분과도 이별하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와 동생들의 미래를 맞바꾼 큰형님은 현재 미국 시애틀에서 노년 생활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동생들 뒷바라지 때문에 불혹의 나이가 되어서야 결혼을 하셨지만 큰조카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차석 웹디자이너로 형님 내외분을 흐뭇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막내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만 생긴단다.”라는 형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적이신 큰형님의 바램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늦은 나이까지 마음 한구석에 대못을 박아대는 나쁜 동생, 그게 저는요. 송구하고 죄송스런 말 밖에 드릴게 없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리 한순간의 실수라고 핑계대어 보지만 제 현재의 모습이 처절할 정도로 시리고 아픕니다.

다행히 이곳에 온 이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8년 전 병원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과 보라매 방송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심폐소생술로 숨이 멎어있던 동료수용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알릴 행동은 아니지만 마음 한 구석엔 큰형님의 가름침대로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큰형님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보답은 못할 망정 누만 끼쳐버린 자식 같은 동생. 그 동생이 이 “새길” 문예지를 빌어 큰형님에게 송구한 맘을 한없이 전하려 합니다. 내려주시는 처벌 달게 받고 개과천선하여 밝은 낮으로 꼭 찾아뵙까합니다. 지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키워주시고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 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밝은 미소 잃지 않으시길 바래 봅니다.

2022. 4.
못난 막내가 올립니다.

작품평 : 부모님의 과거사를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가정의 소중성을 일깨워주는 내용인데 형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전개 방식이 자연스러운 우수작입니다. 개과천선한 막내동생이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온 큰형님께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는 훈훈한 글입니다. 밝은 낮으로 꼭 찾아 뵙고, 키워주시고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운동화



김수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할 기회를 놓쳐 버렸다. 불행하게도 나에겐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추억거리가 없다. 그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껏 나의 머릿속에 간혀 댄도는 아련한 기억 몇 개가 전부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 며칠 전부터 나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듭하며 용기를 가다듬었다. 남들이 알면 좋은 일도 아니고 정서적인 가정사 이야기도 아니라서 불쑥 속마음을 꺼내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만큼 나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은 죄다 트라우마에 얼룩져 있는 기억들 뿐이다.

읍내에서 소문이 자자할 만큼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아버지, 하루가 멀다고 집안을 때려 부수며 가족들을 공포로 몰아넣던 아버지, 그리고 허구한 날 이어진 알 수 없는 폭행.... 그중에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 하나는 내가 여섯 살 때인 1972년 어느 초여름날에 멈춰져 있다. 초가집 주위로 울창한 소나무 숲과 올레길 담장 따라 누렇게 익어가던 보리밭, 그리고 밤마다 부엉부엉 울어대던 부엉이 소리에 여섯 살 꼬마 아이 가슴을 오싹하게 했던 시골집, 과자 몇 개와 라면, 담배, 술이 전부였던 조그만 구멍가게가 생각나는 시골집,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저녁 늦게야 집으로 들어오셨다. 반복되는 아버지의 행동에 덤덤한 어머니는 그날도 여지없이 정지(부엌의 제주어)로 들어가 아궁이 솥 속에 넣어둔 따뜻한 밥과 국을 꺼내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워 술 취한 아버지 앞에 대령했다.

그런데 수저를 들기도 전에 아버지는 밥상을 단숨에 엎질러버렸다. 밥상에 술이 없다는 이유였다. 화가 치밀어 오른 아버지는 그날 몇 장의 유리창과 함께 어머니가 애지중지 아끼던

자개농을 사정없이 부수었고 어머니는 정지에 들어가 킁킁한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숨죽여
올었다. 잔뜩 겁에 질린 가족들 틈에 어린 나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이불을 뒤집어쓴 채
벌벌 떨었다. 큰형과 나는 아버지 술 심부름을 자주 다녔다. 큰형 손을 잡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한 비포장 올레길을 걸을 때면 정말 소름이 돋고 무서웠다.

하루는 설거지하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몰래 숨겨둔 사탕 하나를 건넸는데 난생처음
기쁜 얼굴로 사탕을 먹던 어머니 얼굴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꿈속에서나마 아버지
사랑도 이렇게 달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978년 어느 가을날, 장남인 큰형의 진로 문제와 시내에 직장을 둔 누나를 걱정한 부모님이
시내에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장만해 주셨다. 그 일을 계기로 나도 누나와 큰형을 따라 시내
학교로 전학을 갔다. 부모님과 시골에서 산 지 12년 만이었다. 시내에서 시골까지 거리는 꽤
멀었다. 시외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 남짓 달려 아랫마을에 내린 뒤 다시 버스노선이 없는
시골집까지 도보로 한 시간을 족히 걸어야 갈 수 있었다. 그래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농사일을
도우러 누나를 따라 먼 시골집을 오갔다. 아버지는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불같은 성격에 술에
취하면 뭐든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고 부숴댔다. 변한 건 오히려 어머니 쪽이었다. 마음이
여렸던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마음이 텅텅해졌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가 더 못마땅했는지
술만 드시면 잦은 욕설과 폭행을 자행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학교 졸업식 날, 누나의 축하 속에 졸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운동화 상자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둘러 상자를 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상상도 못 했을뿐더러 기대조차 바라지 않았던 아버지께서 나에게 쓴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다. “우리 막내아들 졸업 축하한다,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신발은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나, 우리 아들 미안하고 사랑한다.” 편지를 덮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이까짓 신발이 뭐라고...’ 애써 태연한 척 애를 쓰는데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렁이며
밀고 들어오는 그 무언가가 사춘기에 접어든 나를 밤새 눈물바다로 채워 버렸다.

그리고 한 달 뒤인 고등학교 입학식 날 나는 난생처음 아버지가 사주신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다. 그런데 입학식이 끝나갈 무렵에 나는 담임 선생님께서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시외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는데 맑은 하늘에
갑자기 봄비가 촉촉이 내렸다. 한 시간 반쯤 달려 아랫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비는 더 거세졌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골집을 향해 달렸다. 아버지가 사주신 새 운동화가 진흙탕에 빠져 질퍽거릴 즈음 집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이미 입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버지 나이 겨우 마흔여덟 살이었다.

그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삼일장을 치르던 날 훑 한 삼을 떠 아버지 관 위로 덮는데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눈물로 범벅이 된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서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처럼 나도 덤덤해져 있었다. 장지에서 돌아온 나는 운동화를 벗어 다른 옷가지들과 함께 불살랐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식 절차였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

“아버지 원망 안 하세요?”

“원망은 무슨, 그래도 네 아버지인데.... 그리고 저 불 속에 있는 신발, 네 아버지가 너 졸업식 날 주려고 일부러 읍내 가서 미리 사다 놓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다. 여태 아버지를 미워만 하면서 살아온 나 자신이 원망스러워 한순간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늦기 전에 운동화 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꼭 한번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쳐 버린 아버지께 이제 와서 진심으로 고합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버진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니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작품평 : 중학교 졸업식 날 받은 아버지의 운동화 선물,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었다.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를 용서와 화해로 해결해준 사랑의 운동화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준 운동화는 나에게 아버지의 전부였으며 최고의 선물이었다. 아버지와 운동화를 연결하여 감동적으로 이끌어간 우수작입니다.

기적이 따로 있나..



조금성

내가 태어난 고향은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5일장이 있는 날이면, 등때기에 큰 북을 메고 발 뒤꿈치에 끈을 연결한 채, 한발한발 걸을 때마다 앞발을 당기면 쿵쿵거리며 북소리를 내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재주도 잘 넘고, 인사까지 90도로 꾸벅꾸벅 잘 하는 일명 백팔배(?) 원숭이와, 사람의 말을 곧잘 따라 한다는 확인 안된(?) 바~암도 나무박스 안에서 모두를 궁금하게 하는 가운데 숨을 죽이고 있노라면, 약장수는 약빨(?) 안 받는다며 “애들은 가~라!” 하면서, ‘힘이 불끈불끈 솟고,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는 돼지발정제(?) 비슷한 정제모를 약을 팔기도 했던 시절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사람들이 서로들 눈치를 보면서도 은근히 많이들 샀던 것 같다. 아마도... 속은게 아니었나 싶다.

그때만 해도 비포장도로였고, 버스가 지나갈 때면 흙먼지로 뒤덮여 돌먼지를 마시며 살았더라도, 땀장염하나 걸리지 않았다. 그래도 이웃 간의 정만큼은 차고도 넘쳐 살맛 나는 세상이었다. 그런 그곳에서 난 7남매 중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래서 사랑은 거의 독차지였었다. 그땐 내가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 말 그대로 5공시절의 OO씨와 같았던 시절이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겁대가리를 상실했을 때다.

우리 집은 그 당시 부유했었다. 아이스끼끼 공장도 있었고, 주류·잡화 도매점까지 했을 만큼. 2층 슬라브집이었다. 아버지는 읍내에서 소방서대장까지 하셨고, 엄마와 함께 라이온스

클럽에도 가입하시어 지역에선 제법 유지이셨다. 이때만 해도 우리집은 아버지를 제외한 모두가 어머니를 따라 천주교 신자가 되어있었다. 아버지만 종교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기적처럼 변화된 아버지의 애길 해볼까 한다.

그 당시에 살림이 다소 여유롭다보니 아버지께서는 자주 버스터미널 부근의 나나노집(?)을 자주 가시곤 하셨다. 한참 바쁜 와중에도 술타령이셨으니, 엄마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어느 날, 드디어 엄마가 나를 부르셨다. 가서 빨리 모시고 오라고.... 예상했던 바이다.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뻥질나게 나나노집을 드나들게 됐다. 이제 육순쯤 되어 생각해보니, 한창 술 한잔에 흥이 오르실 대로 오르신 아버지를 모시러 갔으니, 흥은 흥대로 깨지고 또 분위기는 분위기 대로.... 예구예구, 이거 어찌면 종단 말인가. 어쩔 수 없었던 엄마 심부름이긴 했었으나, 이건 남자로서 도저히 할 짓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사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그땐 죄송했어요. 괜히 눈치도 없이.... 제 뜻이 아니었다는 것만 아세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아버지는 엄마와 내가 얼마나 미우셨을까 싶다. 암튼 그렇게 엄마와 아버지는 알게 모르게 십자군전쟁(?)을 치르셨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도 화가 나셨는지, 내가 눈치도 없이 성당을 가기라도 할 때면, 엄마가 챙겨주시는 현금조차도 못마땅하신 눈치셨다. 얼마나 눈엣가시처럼 보이셨을지, 얼마나 눈꼴사나우셨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이 보인다. 그땠 내 나이 일곱 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서 참 복잡했다. 이거 성당을 가야되는건지 말아야되는 건지, 이거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가면 혼날 것 같고 안 가면 더 똘질 것(?) 같고.... 어쨌든 그때의 나는 애어른이 다 되었던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처럼 부모님 방엔 성모상이 있었고, 성모상 머리 주변엔 예쁜 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잠을 청하셨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엄마의 고통스런 신음소리에 아버지가 깨신 것이다. 엄마는 꿈을 꾸시는 것 같은데 이미 선을 넘어 인사불성이 된 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거의 실신상태였었고, 몸은 이미 뻗뻗하게 굳어있어 사지가 뒤틀린 채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는 무척이나 두려우셨다고 한다. 엄마를 한참 주무르고 있을 때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변마리아(엄마)를 살려 달라고.... 어서 성모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셨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고, 어찌해야 할 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을 때, 엄마가 또다시 무릎 꿇고 제발 아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기도가 뭔지도 몰랐던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버지는 난생처음으로 성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 그 간절함이 성모님을 통해 주님께 전해졌을까. 통했다!

새파랗게 죽어가던 엄마의 입술부터 볼까지 점차 연분홍빛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살아났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순간부터,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성령의 은총으로 술도 끊으시고, 세례까지 받으시어 「모이세」라는 세례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셨다. 그 이후로 나는 아버지의 눈치도 안 보고 편히 성당엘 갈 수 있었고, 아버지는 결국 성당에서 ‘사목회 회장직’까지 역임하시면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이 되셨다. 엄마의 꿈으로 시작된 성령의 인도는, 아버지를 통해 부활의 참된 기적을 남겨 하신 것이다.

기적은 우리의 일상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소확행’을 일상에서 믿고 실천에 옮긴 사람은, 하루하루가 늘상 행복한 기적의 삶일 것이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기적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잘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재수요 액땜의 삶으로만 생각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오늘도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
삶을 성실히 살아내기 위해, 죽음 또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곧 기적이었음을 난 믿는다.
부모님도 그 길을 믿고 따르셨으니, 나도 그 길을 따르려나.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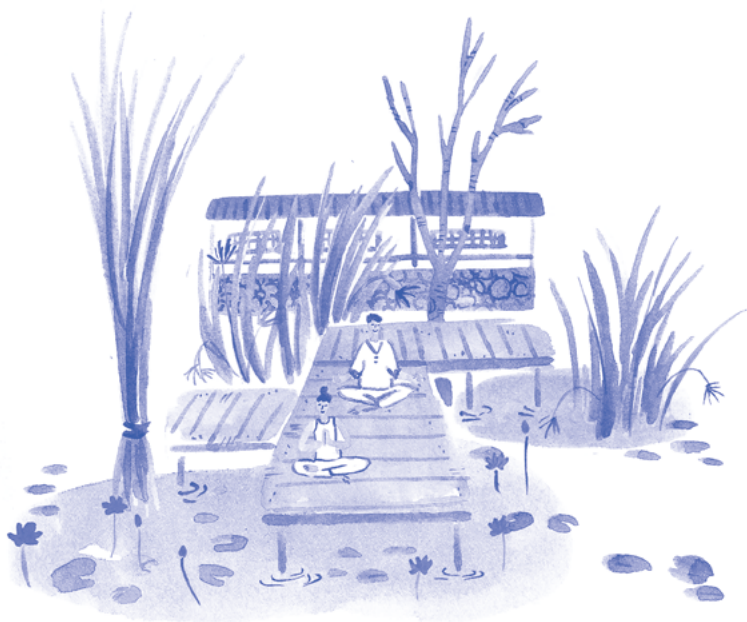


작품평 : 5일장의 추억과 어린시절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진실하게 기록한 글입니다. 기적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항상 행복한 기적의 삶이라고 믿는 필자의 세계관이 교훈을 줍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기 위해, 죽음 또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우수작입니다.

“수기”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문복희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며

박종석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되어서 수감생활을 한지가 어언 2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처음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수감생활을 할 때의 가슴 답답함과 자유를 속박당한 채 죄값을 치러야 할 날들의 기나긴 시간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다는 생각 외는 아무것도 생각나지가 않았다.

사회생활도 있는데 제대로 정리도 못했고 주위에 급히 알릴 겨를도 없이 구치소로 들어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내가 다하는 고뇌의 삶이 시작된 것 같았다.

약 10개월여의 재판과정을 거치고 기결수로 확정되고 교도소로 이송을 와서 서서히 마음의 안정도 되찾았고 앞으로 출소 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알차게 보내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선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춰 보자고 생각의 틀을 바꿔 보기로 했다. 나를 깨우치고 삶을 되돌아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생의 출발선에서 출발해보라는 내 영혼과 정신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이곳 교도소가 어찌면 내 어머니의 품속이었고 나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의 출발선이

되는 출발점이 아닐까하고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라는 옐로우 카드가 아닐까 하고 깊은 반성을 하였다.

이곳에 들어와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니 순간순간의 후회로운 점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 또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뇌리속에 진열되어 찢르르 영상이 펼쳐지곤 한다. 모든 수형자들은 자기의 죄값이 가장 많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죄의 경중에 비해서 다소 과한 죄값을 받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늘은 나를 정당하게 심판을 하고 그에 합당한 죄를 묻고 있다고 마음을 정리하니 모든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하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수형생활에서 참되고 보람된 의미 있는 수형생활을 하리라 다짐을 하였다.

스페인 언어에 Querencia라는 말이 있다.

투우장에서 지친 소가 잠시 쉬는 장소라는 뜻인데 나 또한, 삶에 있어서 이곳을 Querencia 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삶을 잠시 쉬고 충전한다고 생각을 하니 이곳의 생활에 늘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베리아에 가면 바이칼호수가 있다.

그 호수는 그냥 물을 먹어도 좋을 만큼 물이 깨끗하고 정화가 잘되어 있다. 그 원인은 호수에 살고있는 에피슈라 라고 하는 미세한 새우가 있는데 그 새우가 물을 오염하는 모든 생물체를 먹여 삼켜서 물을 깨끗이 정화를 시킨다. 나 역시 영혼을 맑게 정신을 깨끗하게 내 마음속에 에피슈라를 키우듯 항상 정신과 육체 마음과 영혼을 정화 시켜야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형생활이지만 출소 후에도 이곳에서의 생활을 잊지 말고 한 알의 밀알이 되는 보람된 생활을 할 것을 스스로 마음의 약속을 한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나의 삶을 잔잔히 돌아보면 그저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하지 않았나하고 생각해봤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는 용서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이의 삶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도움을 주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할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결심한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아닐까?

이 모든 마음의 양식이 변화를 맞이한 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과연 내 마음이 변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니 결코 그렇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 시키는 계기가 아닐까 하고 내자신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를 해보았다.

세상을 바라보는 망원경의 렌즈를 닦을 때 먼지 묻은 타올로 렌즈를 닦으면 세상은 온통 먼지투성으로 보이지만 깨끗한 타올로 렌즈를 닦아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매우 깨끗이 보인다.

나도 내 마음의 타올을 항상 깨끗이 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항상 깨끗이 유지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겠다.

작품평 : 후회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머물며 말을 타고 달리느라 미처 따라오지 못한 영혼을 기다려주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멈춤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지금이 생의 반환점이 된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 마음가짐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악마의 얼굴

박우영



3월의 시작과 함께 답답한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나는 후회와 반성만 하는 자책의 시간만 보내기보다는 마약의 무서움을 알리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보고자 펜을 들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교도소를 나간 후 보다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잡아보고자 마음을 다잡고 생각에 잠겨 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삶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에 잠겨 보지만 아직까지 그 물음에 난 아직까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어느 늦은 봄날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부터 바뀐 내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마약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잃고 많은 사람들을 떠나 보내게 됐다. 주변에 지인들도 많았고 일과 관련된 사람들도 많았지만 마약을 접하게 되면서 서서히 바뀌는 내 삶의 모습들을 그때는 알 수가 없었다.

마약으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주변 지인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저의 삶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 있는 시간만 갖게 되며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줄도 몰랐었다. 그렇게 일도 내 삶도 지인들도 멀어져만 갔지만 난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과의



달콤함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깊은 수렁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그해 여름 참 많이 덥다고 느껴졌던 날씨의 연속이었다고 기억이 된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이 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나에게는 더욱 힘든 계절이었다.

마약을 하기 전 내 모습이라면 이런 더위속에서 골프를 친다며 어느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내 모습 또는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서 바다 루어 낚시를 하며 대물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무더운 더위와 싸우며 후덥지근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힘겨워 하던 내 모습들일텐데 지금의 내 모습은 어두 킁킁한 방에서 앉아 잠시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지만 조금씩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내 모습이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내가 이런 면이 있을 줄이야...

이런 내 모습에 솔직히 놀라울 따름이다. 난 왜 이렇게 변해만 가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하기도 전에 마약은 서서히 내게 본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며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구렁텅이로 날 밀어 넣고 있는데 그때의 난 그걸 모르고 아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거 같다.

마약의 끝은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고 회복되지 않는 삶이며 더 나아가면 파멸이라 절대 해서는 안되는데 무지한 나는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다. 난 마약이라는 것을 끊고 싶을 때 언제든 내가 끊고 나에게 중독이라는 것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고 중독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을 정도로 마약에 대해 너무 무지할 정도로 부족한 마약 정보, 마약 상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의 큰 잘못이 아니었나 싶다.

마약이라는 것이 주는 무서움보다 마약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되면서 나를 점점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더욱 무섭게 다가오는데 이러한 마약의 무서움은 소리 없이 어느새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이다.

내가 인지하고 주변을 돌아보지만 그땐 이미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난 후 텅그러니 혼자만 남아 있는 내 모습만 보이게 된다. 마약은 아무런 모습을 하지 않고 안보이다가 내가 점점 마약에 빠져들게 되면 그때 악마의 모습으로 내 옆에 나타나게 되기에



다가가서도 안되며 호기심도 뒤서는 안되는 것이다.

마약의 끝은 당신의 건강한 삶과 행복, 가정의 파멸입니다. 내 자신과 가족을 사랑한다면 마약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악마입니다.

작품평 :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자신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지금 내가 여기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이유를 안다면 그 시작은 이미 어떤 일의 반이어서 헤어나오는 일도 반은 해낸 것입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므로, 알면서도 안되는 일은 글도 쓰고, 상담도 하는 등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겠지요.

“소감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냅니다

윤성식

몹시 추웠던 겨울이 지나 십오척 담장 안에서 네 번째 맞이하는 봄입니다.
왜 무엇을 그리 힘겹게 살려 했는지 지금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서야, 두 눈에 눈물을 흘려
봅니다.

아주 어릴 적 아버지의 손길이 문득 기억나곤 합니다.
손 바닥에 유난히도 손금이 많아 보이던 당신의 손, 잠들기 전 거친 그 손으로 등을 긁어
주시면 저 또한 사르르 눈이 감기며 잠이들곤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시원하고 거친손이 손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험한 일
긋은일로 손 바닥에 수 없이 상처가 터지고 아물고 하여 생긴 굳은 살덩이였다는 것을요.

아버지 저도 이제 독수리 5형제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막둥이 ○○이 녀석도
어느새 훌쩍 자라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꽃향기 진한 봄날에 아버지 당신이 저의 곁을 떠나 가신지도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인들 생전 자기 부모 얼굴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매년 이맘 때가 되면 항상 그리운
당신을 뵈러 가면 환하게 반겨 주셨는데, 너무나 그립습니다. 꿈에서라도 얼굴을 뵈면 저에게
무슨 일이 있다 말씀드리며 용서를 구하려 했는데 꿈에서도 오시지 않으셔서 기다리고 계실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 제 가슴에 각인된 불효의 죄스러움이 너무 커



속죄하며 죄 된 몸 죄 된 마음 깨끗이 씻어내며 혼자 술한 약속과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며 살고 있는 지금에도 가슴 한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살아생전 아버지께서 배움의 끝은 나이가 없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곳에서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서 도배와 건축목공 자격증을 취득하여 희망을 품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오늘도 나를 구속했던 시간을 지나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소중한 그 무게를 느끼면서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 저 또한 너무 이 기회가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저 먼발치에서 저에게 묘한 신통력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저가 지금 감내하기 힘이 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세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 용서하시고 빨리 꿈에서라도 뵙고 싶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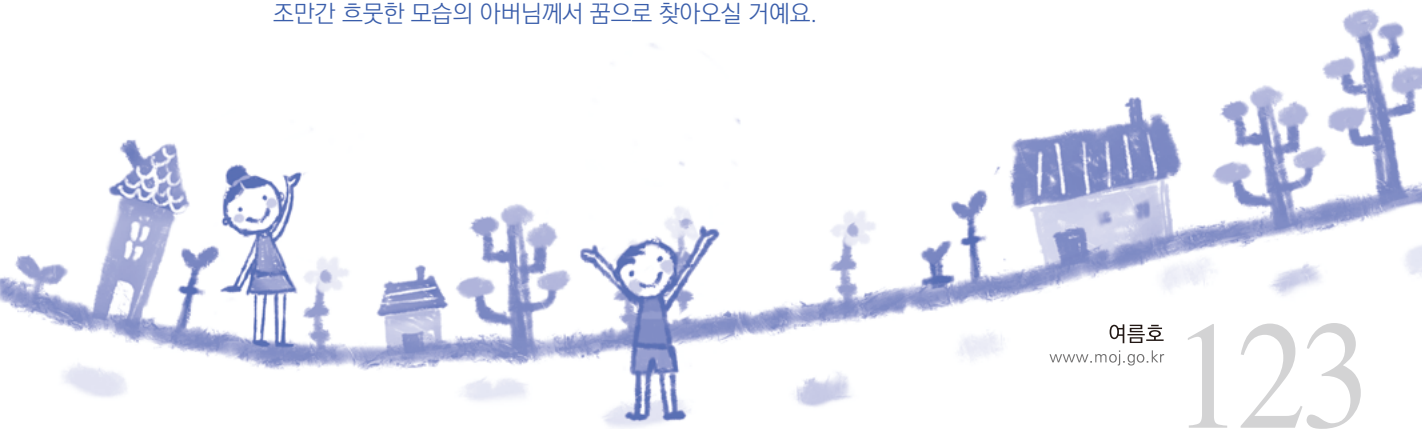
당신이 예뻐하는 손자 손녀 꼭 지켜 봐주시고 하나뿐인 당신의 며느리도 지켜 주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저보다 못한 분을 위해 이제 남은 생 그리 살다 아버지 곁으로 가려 합니다.

저에게 주었던 그 사랑 기억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아들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한평생 못한 말 이제야 후회하며 말하여 봅니다.
존경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2022년 봄에 아들이...

작품평 : 아버지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아버지가 되고 내 아버지의 소중한 무게를 느낀다는 것은 독수리 오형제 자식들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질 무게겠지요. 도배와 건축목공 자격증도 취득하며 열심히 지내다보면 조만간 흐뭇한 모습의 아버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막내누님 고맙습니다

서준희



아직도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0개월의 수용생활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오랜만에 상을 펴놓고 막내 누나를 위해 감사의 글을 올려봅니다.

가장 기뻐던 일, 가장 좋았던 일,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가장 감명깊게 읽었던 책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무엇보다 막내 누나에게 감사합니다.

2007년 사업 실패로 인해 행복했던 가정생활이 파탄나고 나는 아이 둘(당시 아들 12살, 딸 10살)을 막내 누나에게 맡기고 밤낮으로 돈을 벌기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라면을 끼니로 때울때도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속에서도 아빠를 이해했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준 아들, 딸이 무척 고맙고 조카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아껴주신 막내누나와 매형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항상 마음 한편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막내누나 덕분에 비교적 안정된 마음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고 보살펴준 막내누나도 이제 환갑이 지난 할머니가 되어 버렸습니다. 속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며 살아오지 않았고 누군가로부터 “고맙다”, “미안하다”와 같은 말을 자주 들어보지도 못했기에 누나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시간이 힘들게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라도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독한 염색약을 만진 손이 꺼칠꺼칠하고 더럽혀진 손을 볼 적마다 마음이 아파 속이 상했는데 이젠 그만 편안한 생활을 하면 좋겠고 경로당 같은 곳에 가서서 여유로운 생활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이곳 생활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반성하며 기도하며 남은 수용생활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시작같은 느낌이지만 내가 걸어온 길은 되돌아 볼 수 없기에 두려워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미래의 저를 조금씩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의 관심된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 질 수 있었고 나의 죄에 대한 후회를 할수 있고 다시는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힘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면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랑하는 자식들과 그동안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한다면 태연하게 넘길 수 있고 지금의 힘든 시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내누나 저의 누나여서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을 챙기며 제 곁에 오래 오래 있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막내 서준희 올림

작품평 : 한 사람의 존재는 어떤 기적과도 같다는 말이 있지요. 힘들어 할 때 힘이 되어주고 자식까지 키워준 누나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참 고마운 누나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단 하지만 동생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면 누나는 충분히 동생 마음을 알거예요.

사랑의 기억



한영수

나에게 기회가 있어서 현재,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집에서 먹던 집밥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집밥에 대한 기억은 배고픔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끄는 연결고리 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김치찌개의 냄새와 “밥 먹어라” 부르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함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우리 부모, 형제들이 생각납니다. 나의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은 젊으셨던 어머니의 시절이기도 합니다. 밥상을 차려 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챙겨주시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그때의 고우셨던 미소도 그립습니다.

또한 어머니 품속의 따뜻한 냄새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던 또다른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나 제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저는 밥상을 차려주시던 사랑과 당신이 만드신 음식의 냄새로 어머니를 추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 중에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아내에게서만 밥상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제는 아내에게 많은 의지를 해야 되겠지요. 어머니에게 받은 밥상은 당연히 받았지만 아내에게 받는 밥상은 밍보이지 않아야 받을 수 있겠지요. 내가 힘들 때 마다 이 순간을 기억하며,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끝없는 사랑을 추억할 것이며, 밥을 먹을 때 마다, 어머니의 냄새를 기억하며 삶의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아내는 모르겠요,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작품평 : 집밥에서 떠오르는 기억들이 많지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형제들, 가장 행복했던 시절 등 추억이 한아름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이 사랑임을 아셨군요. 어머니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아내와 따뜻한 집밥을 먹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서간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새길을 읽고

박정화

작품평

붕어빵을 꼬리부터 먹는 동생,
머리부터 먹는 언니가 있듯이
새길은 어느 쪽지부터 읽어도
좋지요. 소개된 글들은
도란도란 아껴 먹었던 추억
같은 기억이니까요. 이번
8월에는 새길과 함께 조금은 덜
흑독하고 덜 잔인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흑독하고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한 계절이 벌써 지나고 지금 이만큼 와버린 세월과 함께 제 모습도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인성교육과 절제할 수 있는 많은 책을 통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오만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이곳에서 저는 새길이라는 지난번 당선된 분들의 글을 한 페이지 한장 한장 넘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많은 수용자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갇힌 생활공간보다 사회라는 어떤 주어진 생활을 각자 스스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이러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자기표현을 통해 좀 더 나아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글을 통해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용자들을 통해 한장 한장 넘기면서 울먹했던 마음도 있었고, 창문을 내다보면서 그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한여름날 원두막에서 도란도란 수박 속에 까만씨를 뺀내며 살아가는 이야기 꽃도 좋고 늘 웃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사랑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새길을 읽고

긴긴 겨울날 군고구마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추억이었고 저 역시 이 글을 통해 잠시 옛 추억을 그렸습니다. 친구들과 이불 속에 나란히 발을 넣고 군고구마 한가득 동치미 한그릇 그 추억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고독이라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붕어빵 속에는 검은 팔이 적적이고 일품이었고, 우리 부모님(아버지)께서도 신문봉지 따끈한 붕어빵을 싸들고 오셨던 기억이 새삼 납니다. 꼬리부터 먹는 동생, 머리부터 먹는 언니, 도란도란 둘러앉아 아껴먹었던 기억들.

저는 이 새길에 응모된 수용자들 글은 너무나 감사한 글들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힘든 이곳 생활에 누구나 의지라는 말들이 생각납니다.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하는 이 현실에 한편의 책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한편의 시 속에 내 마음은 또 다스리면서, 남은 기간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은 없지 않을까 봅니다.

“새길” 한편의 시 속에 내 마음을 생각하고 내가 그 시 속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삶을 보람되게 살아야겠다고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빨간 감이 무력 익어가고 있는 그림 속에 제 마음도 익어가는 존재가 되어가길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길을 통해 예쁜 그림과 수용자들의 좋은 글, 마음의 글을 읽게 되어 제 마음도 많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감상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